2025. 08

국회예산정책처 I 산업동향 & 이슈 I 제77호

NABO 산업동향 & 이슈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CONTENTS

산업 동향

산업 이슈 |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원인과 특징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기 획 · 조 정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작 성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이유섭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 원	**양희열**	행정실무원
	김세하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산업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 02-6788-37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Contents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2025년 8월호 통권 제77호

NABO 산업동향 & 이슈

Ⅰ 산업생산

1. 전산업 08
2. 제조업 12
3. 서비스업 24

Ⅱ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32
2. 가공단계별 수출 41

Ⅲ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42
2. 비철금속 48
3. 농산물 49

Ⅳ 환경

1. 배출권거래 50
2. 재활용가능자원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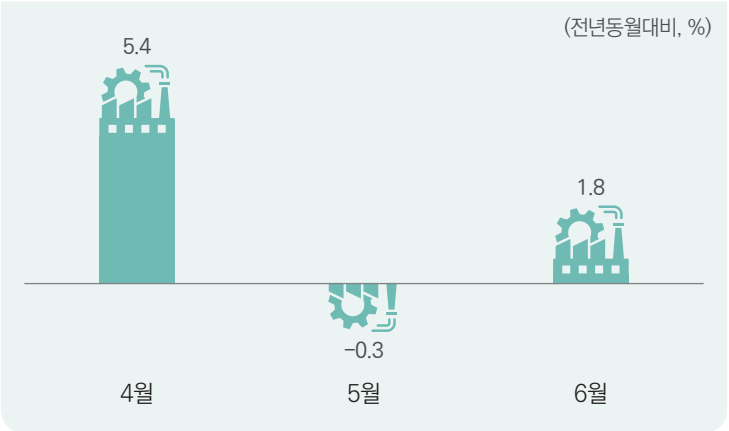
Ⅴ 산업 이슈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원인과 특징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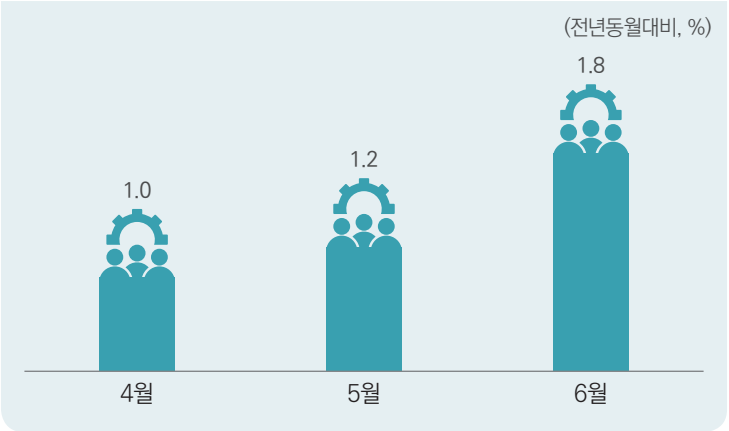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전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산업동향 & 이슈 종합

-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과 서비스업의 완만한 수요 증가로 개선**

  2025년 6월 제조업은 수출실적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을 보였으나, 건설경기는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수의 감소세를 지속

- **(전산업 생산) 6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 1.2%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0.7 → (5월) −0.8 → (6월) 0.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7 → (5월) −1.1 → (6월) 1.2

- **(제조업 생산) 6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전월대비 1.7%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5.4 → (5월) −0.3 → (6월) 1.8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6 → (5월) −3.4 → (6월) 1.7

- **(서비스업 생산) 6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전월대비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1.0 → (5월) 1.2 → (6월) 1.8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1 → (5월) −0.1 → (6월) 0.5

- **(건설업 생산) 6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 전월대비 6.7% 증가**
  - 건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20.9 → (5월) −19.8 → (6월) −12.3
  - 건설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1.2→(5월) −3.0 → (6월) 6.7

- **(수출) 7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466.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 수출액(억달러): ('25.4월) 441.3 → (5월) 444.4 → (6월) 459.1 → (7월) 466.2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4월) 1.7 → (5월) −1.7 → (6월) 2.7 → (7월) 5.3

- **(에너지 및 원자재) 7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비철금속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에너지 가격(전년동월대비,%): ('25.4월) −19.8→ (5월) −18.1 → (6월) −11.2 → (7월) −13.5
  - 농산물 가격(전년동월대비,%): ('25.4월) −0.5→ (5월) 2.0 → (6월) −2.0 → (7월) −2.1
  - 비철금속 가격(전년동월대비,%): ('25.4월) −5.9→ (5월) −8.4 → (6월) −1.8 → (7월) 3.2

- **(환경) 6월 배출권(KAU24) 종가는 전월대비 하락,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 KAU24 종가(원/톤): ('25.4월) 8,790 → (5월) 8,940 → (6월) 8,700
  - KAU24 장내거래량(천톤): ('25.4월) 1,928 → (5월) 2,428 → (6월) 3,377

주요 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2Q	3Q	4Q	1Q	2Q	5월	6월	7월
전산업생산	1.1	1.5	2.2	0.5	0.6	-0.5	0.3	-0.8	0.8	-
제조업생산	-2.6	4.2	5.3	2.2	3.7	2.0	2.3	-0.3	1.8	-
서비스업생산	3.4	1.1	1.6	0.2	0.6	0.4	1.4	1.2	1.8	-
소매판매액	-1.3	-2.1	-3.1 (-0.3)	-1.5 (0.7)	-2.0 (-0.4)	-0.3 (-0.4)	-0.2 (-1.0)	-0.4 (-0.1)	0.1 (0.5)	-
설비투자지수	-4.8	2.9	-3.3 (-1.4)	11.5 (10.2)	5.3 (-1.8)	5.7 (-1.7)	5.6 (0.3)	6.7 (-5.3)	2.1 (-3.7)	-
건설기성액	7.8	-4.7	-3.1 (-8.2)	-9.1 (-3.8)	-9.7 (-5.1)	-21.2 (-6.4)	-17.5 (-3.3)	-19.8 (-3.0)	-12.3 (6.7)	-
수출(통관)	-7.5	8.1	10.1	10.5	4.2	-2.3	2.1	-1.3	4.3	5.9
13대수출	-9.1	10.4	13.2	13.1	4.4	-3.2	0.9	-1.7	2.7	5.3
수입(통관)	-12.1	-1.7	-1.4	6.2	0.9	-1.4	-1.7	-5.3	3.3	0.7
경상수지(억달러)	328.2	990.4	236.8	270.7	318.2	192.6	301.1	101.4	142.7	-
소비자물가	3.6	2.3	2.7	2.1	1.6	2.1	2.1	1.9	2.2	2.1
취업자수 증감(천명)	327	159	146	146	52	155	207	193	194	245
실업률	2.7	2.8	2.9	2.2	2.8	3.4	2.8	3.1	2.9	2.8
원/달러환율	1,306	1,364	1,377	1,308	1,473	1,473	1,350	1,380	1,350	1,387
국고채금리(3년)	3.57	3.11	3.31	3.38	2.79	2.59	2.39	2.33	2.44	2.47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 는 분기(월) 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I 산업생산

1 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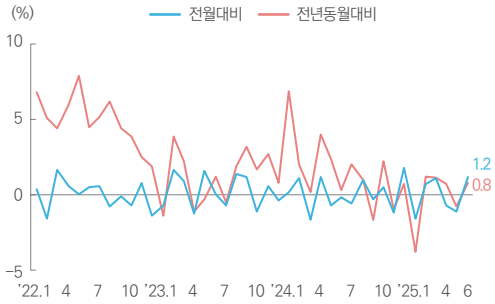
■ 2025년 6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2%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0.7 → (5월) -0.8 → (6월) 0.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7 → (5월) -1.1 → (6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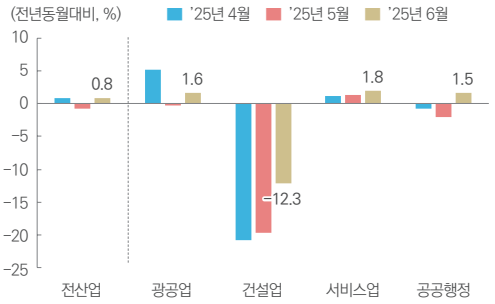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1.8%), 광공업(1.6%), 공공행정(1.5%)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12.3%)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6.7%), 광공업(1.6%), 공공행정(1.4%), 서비스업(0.5%)의 생산이 모두 증가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 2025년 6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년동월대비: 가전(-19.8%), 섬유(-4.4%), 화학(-2.6%), 일반기계(-1.7%) 등은 줄었으나, 조선(39.3%), 무선통신기기(25.5%), 컴퓨터·주변장치(18.6%), 반도체(16.6%), 석유(2.5%), 자동차(1.8%), 철강(0.6%) 등의 생산이 늘어 1.8%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5.4 → (5월) -0.3 → (6월) 1.8

전월대비: 조선(-3.5%), 가전(-3.2%), 일반기계(-1.8%), 철강(-0.4%) 등의 생산은 줄었으나, 무선통신기기(12.1%), 컴퓨터·주변장치(8.3%), 반도체(6.6%), 자동차(4.2%), 석유(2.6%), 화학(1.7%), 섬유(0.8%) 등의 생산은 늘며 1.7% 증가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6 → (5월) -3.4 → (6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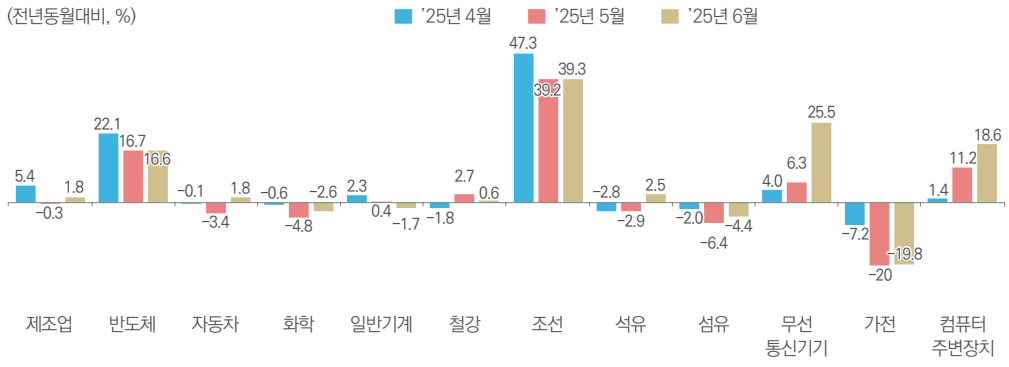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11.5	113.9	113.3	117.5	113.6	115.3	1.7
제조업	7.6	5.1	3.3	5.4	-0.3	1.8	
반도체	22.4	17.5	26.3	22.1	16.7	16.6	6.6
자동차	3.8	-2.3	-4.2	-0.1	-3.4	1.8	4.2
화학	3.5	7.0	1.8	-0.6	-4.8	-2.6	1.7
일반기계	4.3	-4.2	-6.4	2.3	0.4	-1.7	-1.8
철강	-4.3	-9.9	-8.7	-1.8	2.7	0.6	-0.4
조선	11.9	16.4	6.7	47.3	39.2	39.3	-3.5
석유	1.9	-4.4	6.0	-2.8	-2.9	2.5	2.6
섬유	-0.1	2.0	-2.3	-2.0	-6.4	-4.4	0.8
무선 통신기기"	-0.8	18.6	8.6	4.0	6.3	25.5	12.1
가전	9.4	15.3	8.6	-7.2	-20.0	-19.8	-3.2
컴퓨터 주변장치	-12.7	-16.8	-12.5	1.4	11.2	18.6	8.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그림 3 | 제조업 생산 동향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5년 6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2.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9%), 부동산업(-0.7%) 등은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업(4.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4.4%), 운수창고업(4.0%), 도소매업(2.0%), 정보통신업(0.1%) 등이 늘어 1.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4월) 1.0 → (5월) 1.2 → (6월) 1.8

전월대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 숙박·음식점업(-1.7%), 정보통신업(-0.8%) 등은 줄었으나, 금융·보험업(3.4%), 부동산업(3.4%), 도소매업(0.8%), 운수창고업(0.5%) 등이 늘며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4월) 0.1 → (5월) -0.1 → (6월)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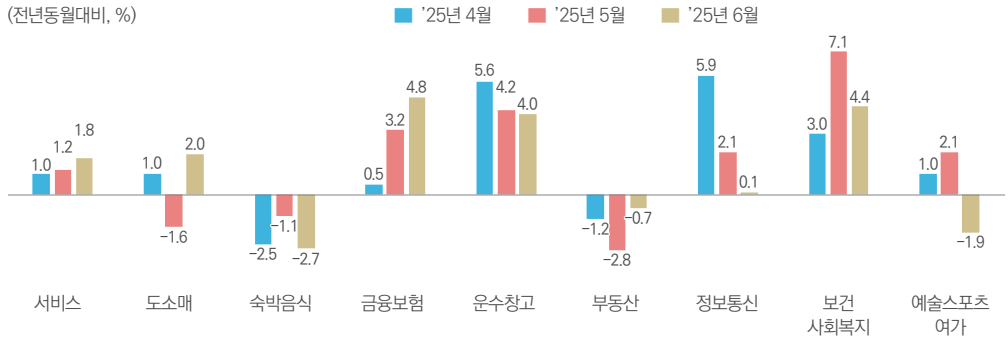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16.6	117.2	119.0	117.8	118.6	121.1	0.5
서비스업	2.8	1.7	0.1	1.0	1.2	1.8	
도매 및 소매업	0.9	-1.2	-4.8	1.0	-1.6	2.0	0.8
숙박 및 음식점업	-2.2	-1.1	-0.8	-2.5	-1.1	-2.7	-1.7
금융 및 보험업	1.5	4.1	2.5	0.5	3.2	4.8	3.4
운수 및 창고업	12.0	8.5	7.1	5.6	4.2	4.0	0.5
부동산업	-1.1	-2.3	-2.2	-1.2	-2.8	-0.7	3.4
정보통신업	4.0	3.5	4.4	5.9	2.1	0.1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	1.4	1.4	3.0	7.1	4.4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	7.2	-0.1	1.0	2.1	-1.9	-7.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동향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2025년 6월 중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14개월 연속 감소(-12.3%)하였고, 부문별로는 건축(-10.3%)과 토목(-17.0%)이 모두 감소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5.4월) -20.9 → (5월) -19.8 → (6월) -12.3
- 건축(전년동월대비, %): ('25.4월) -23.1 → (5월) -22.4 → (6월) -10.3
- 토목(전년동월대비, %): ('25.4월) -13.6 → (5월) -11.5 → (6월) -17.0

전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증가(6.7%) 전환하였고, 부분별로는 건축(10.3%)은 증가하였으나 토목(-2.8%)은 감소

- 건설업(전월대비, %): ('25.4월) -1.2 → (5월) -3.0 → (6월) 6.7
- 건축(전월대비, %): ('25.4월) -3.3 → (5월) -4.0 → (6월) 10.3
- 토목(전월대비, %): ('25.4월) 5.3 → (5월) -0.2 → (6월)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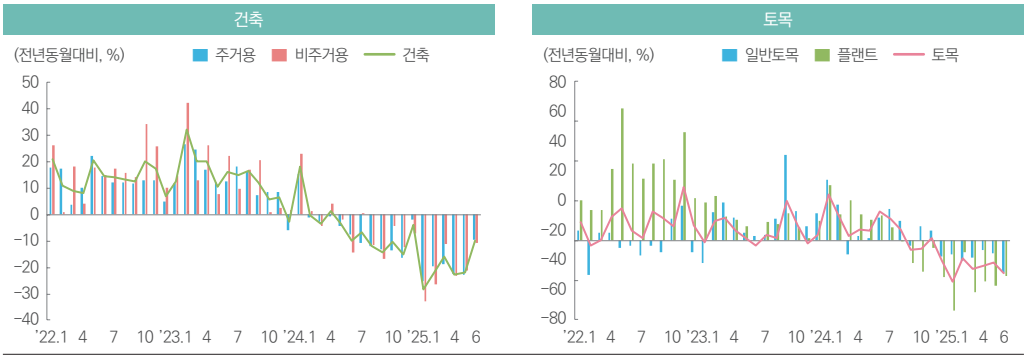
| 표 3 | 건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건설업(생산액)	11.9	11.4	12.6	9.4	9.1	11.0	6.7
건설업	0.4	-3.4	-6.0	-20.9	-19.8	-12.3	
건축	-0.5	-5.2	-11.7	-23.1	-22.4	-10.3	10.3
토목	3.5	2.6	11.6	-13.6	-11.5	-17.0	-2.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5 | 공정별 건설업 기성액(경상) 추이



주: 건축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고, 토목은 일반토목, 플랜트, 전기기계, 조경공사로 구성되나, 전기기계, 조경공사는 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를 제외함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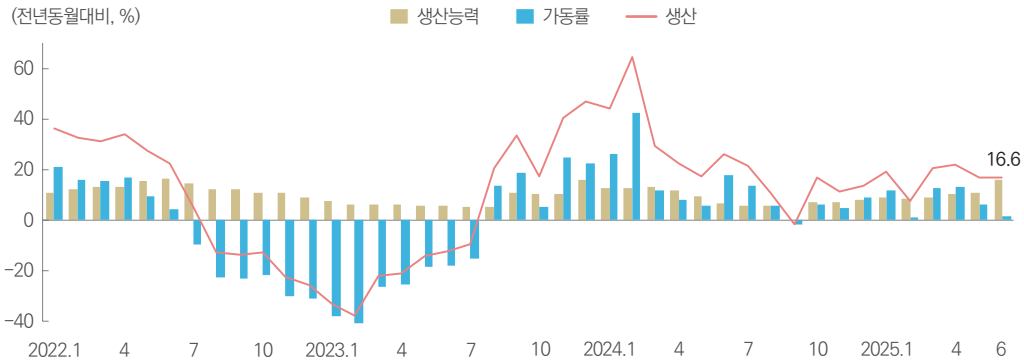
2 제조업

■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6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2.1 → (5월) 16.7 → (6월) 16.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3.1 → (5월) 6.3 → (6월) 1.6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0.1 → (5월) 10.7 → (6월) 15.7

| 그림 6 | 반도체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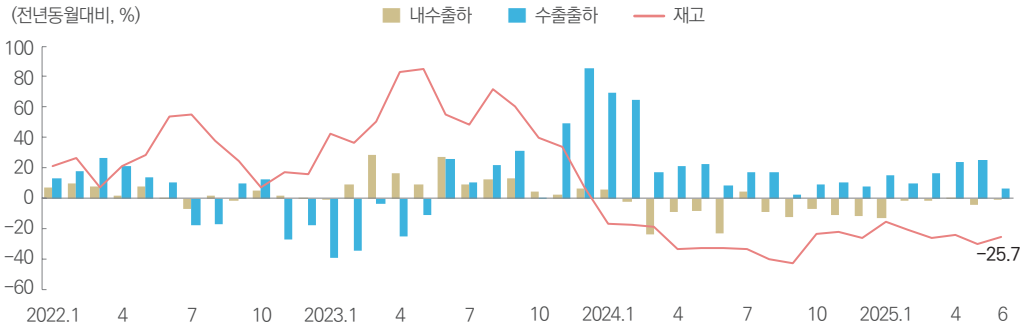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반도체 재고의 전년동월대비 25.7% 감소는 수출이 견인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4.5 → (5월) -30.5 → (6월) -25.7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6 → (5월) -4.1 → (6월) -1.1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4.1 → (5월) 25.0 → (6월) 6.5

| 그림 7 | 반도체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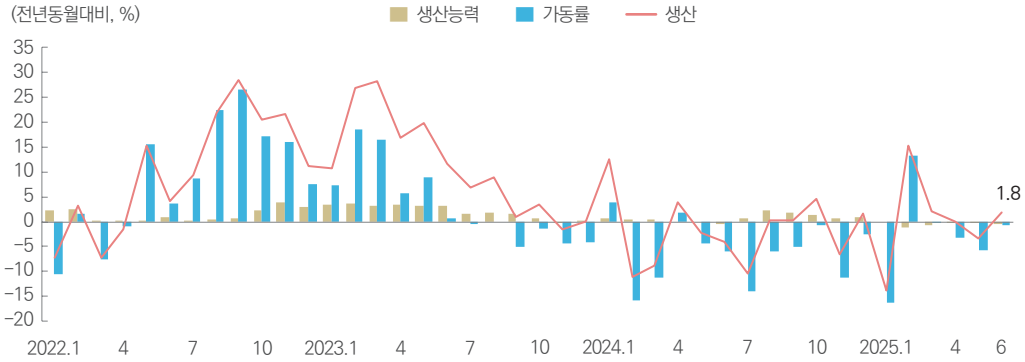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소폭 증가, 「재고」는 증가

6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1 → (5월) -3.4 → (6월) 1.8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3.1 → (5월) -5.8 → (6월) -0.6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1 → (5월) -0.3 → (6월) -0.4

| 그림 8 | 자동차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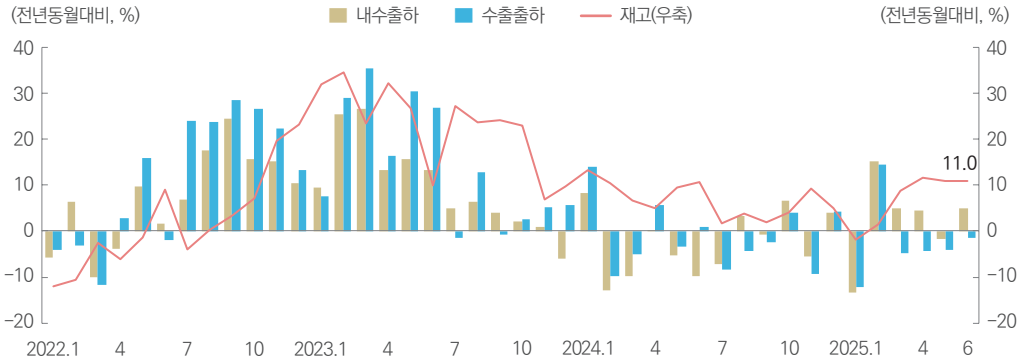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자동차 재고는 수출출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1.7 → (5월) 11.0 → (6월) 11.0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6 → (5월) -1.7 → (6월) 4.9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3 → (5월) -4.0 → (6월) -1.5

| 그림 9 | 자동차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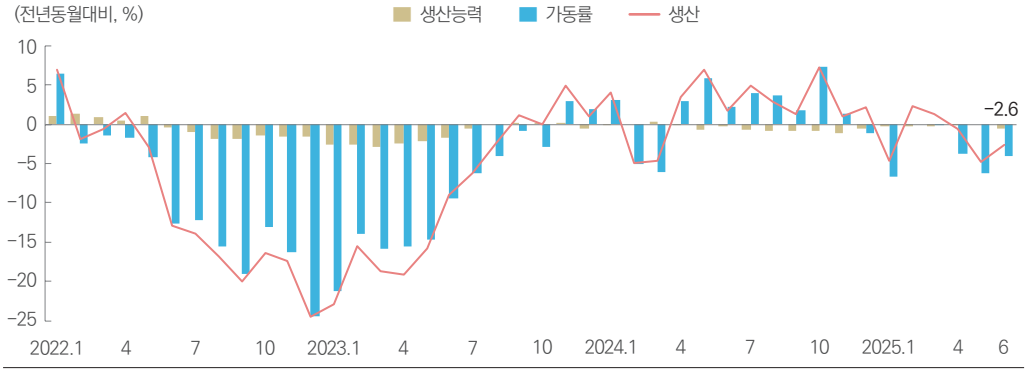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화학: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과 「재고」는 감소

6월 화학 생산은 가동률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6%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6 → (5월) -4.8 → (6월) -2.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3.7 → (5월) -6.3 → (6월) -4.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1 → (5월) 0.0 → (6월) -0.5

| 그림 10 | 화학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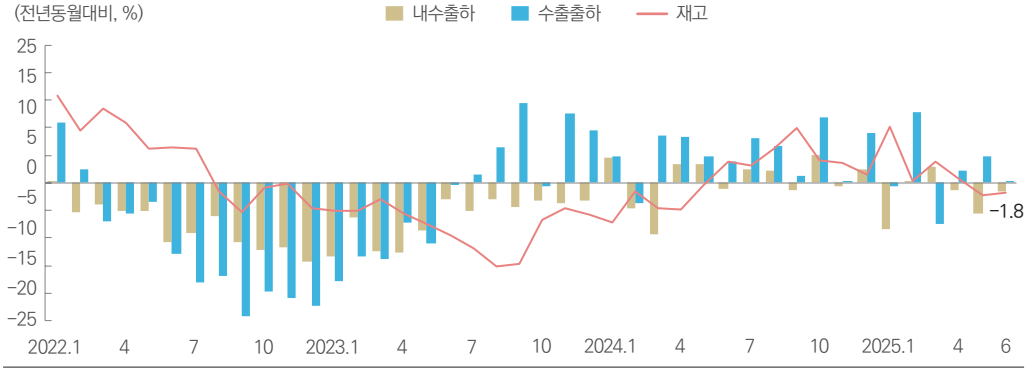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화학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9 → (5월) -2.2 → (6월) -1.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4 → (5월) -5.5 → (6월) -1.5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3 → (5월) 4.7 → (6월) 0.2

| 그림 11 | 화학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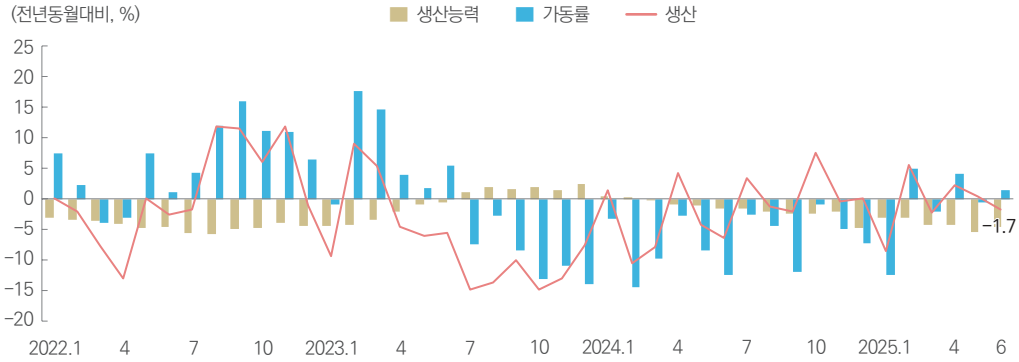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일반기계: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과 「재고」 감소

6월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3 → (5월) 0.4 → (6월) -1.7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1 → (5월) -0.6 → (6월) 1.5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2 → (5월) -5.3 → (6월) -4.5

| 그림 12 | 일반기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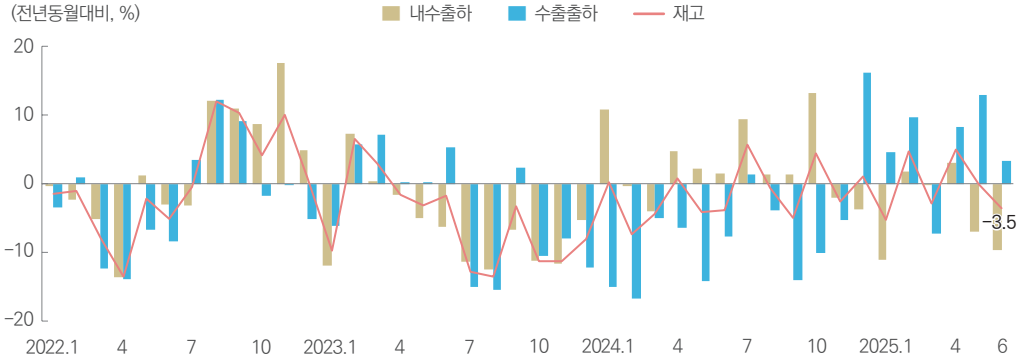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일반기계 재고는 수출출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5%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5.0 → (5월) -0.1 → (6월) -3.5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3.1 → (5월) -7.0 → (6월) -9.6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8.3 → (5월) 12.9 → (6월) 3.3

| 그림 13 | 일반기계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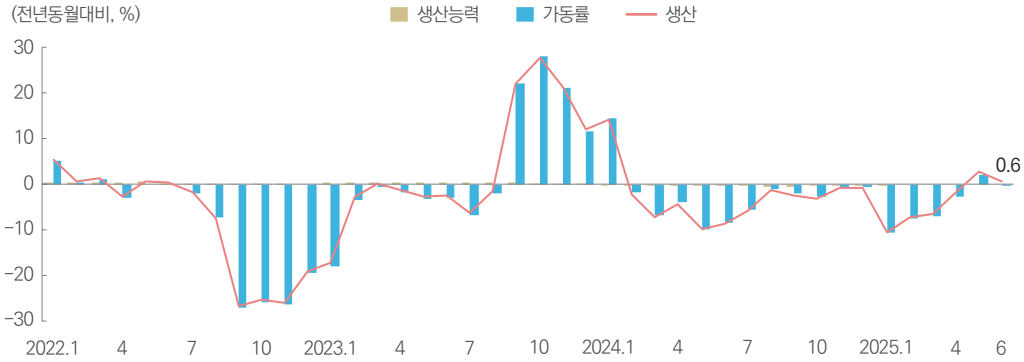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철강: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소폭 증가, 「재고」는 감소

6월 철강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8 → (5월) 2.7 → (6월) 0.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7 → (5월) 2.0 → (6월) -0.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0 → (5월) 0.0 → (6월) 0.0

| 그림 14 | 철강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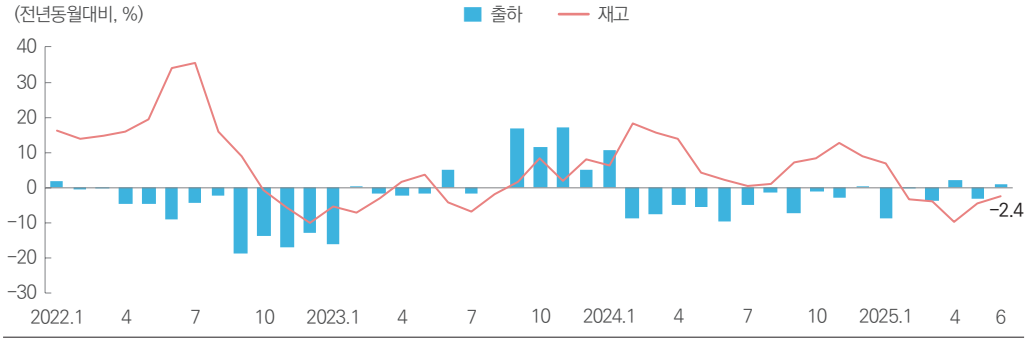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철강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9.7 → (5월) -4.7 → (6월) -2.4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2 → (5월) -3.0 → (6월) 1.0

| 그림 15 | 철강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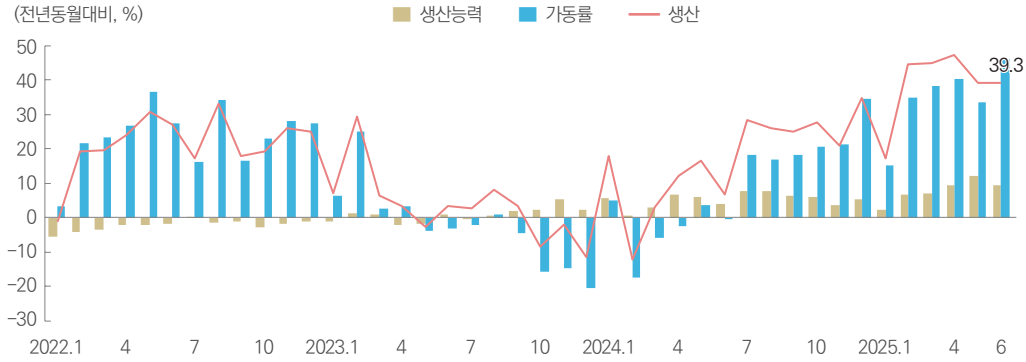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조선: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과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

6월 조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9.3%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7.3 → (5월) 39.2 → (6월) 39.3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0.3 → (5월) 33.5 → (6월) 46.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9.5 → (5월) 12.1 → (6월) 9.5

| 그림 16 | 조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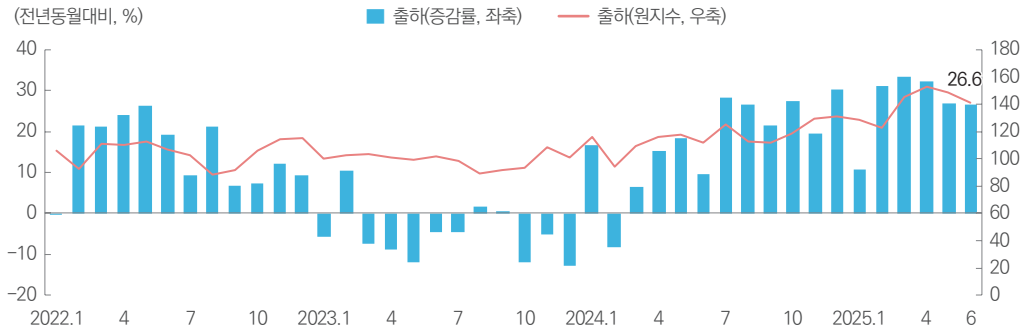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조선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32.2 → (5월) 26.9 → (6월) 26.6
- 출하(2020년=100): ('25.4월) 153.4 → (5월) 149.1 → (6월) 141.2

| 그림 17 | 조선 산업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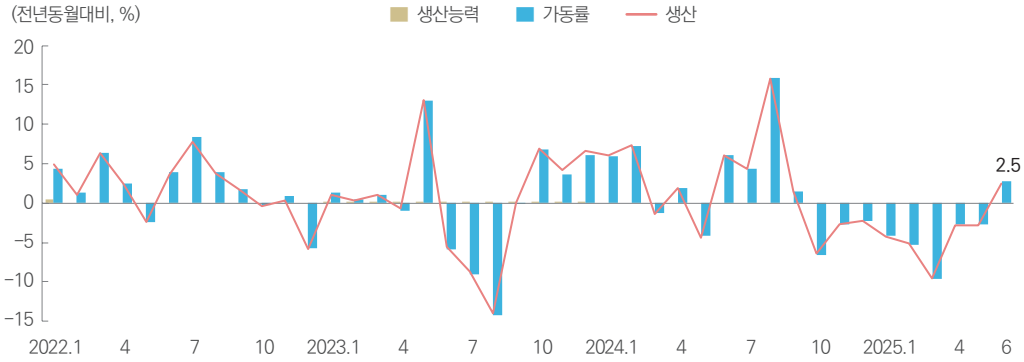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석유: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6월 석유 산업 생산은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8 → (5월) -2.9 → (6월) 2.5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7 → (5월) -2.7 → (6월) 2.7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0 → (5월) 0.0 → (6월) 0.0

| 그림 18 | 석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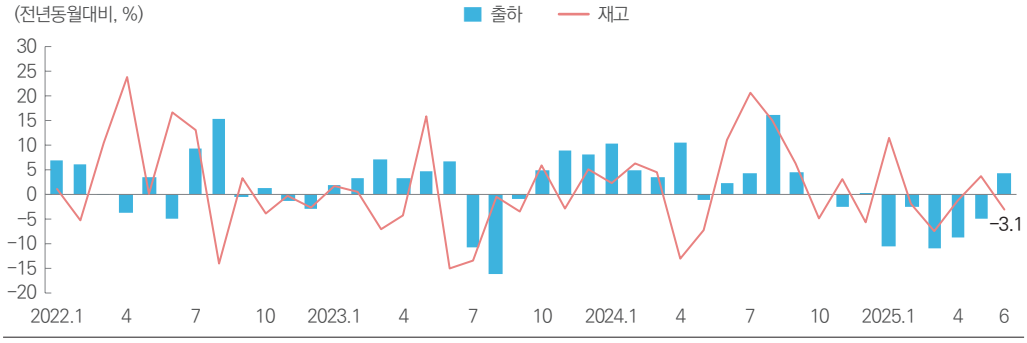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석유 산업 재고는 출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1%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3 → (5월) 3.7 → (6월) -3.1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8.7 → (5월) -4.9 → (6월) 4.3

| 그림 19 | 석유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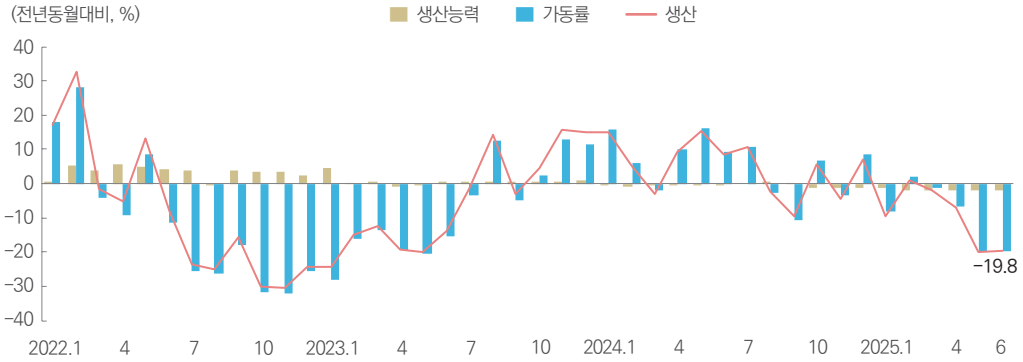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가전: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과 「재고」 감소

6월 가전 생산은 가동률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9.8%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7.2 → (5월) -20.0 → (6월) -19.8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6.6 → (5월) -19.7 → (6월) -19.9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0 → (5월) -1.9 → (6월) -1.9

| 그림 20 | 가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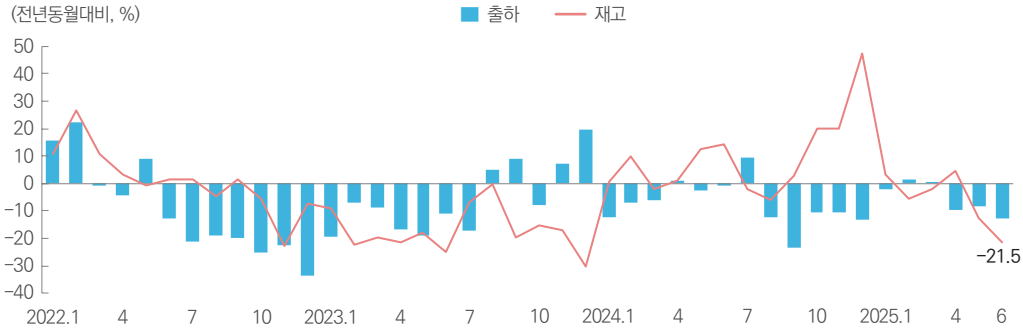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가전 재고는 출하 감소에도 생산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1.5%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4 → (5월) -12.9 → (6월) -21.5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9.7 → (5월) -8.5 → (6월) -12.9

| 그림 21 | 가전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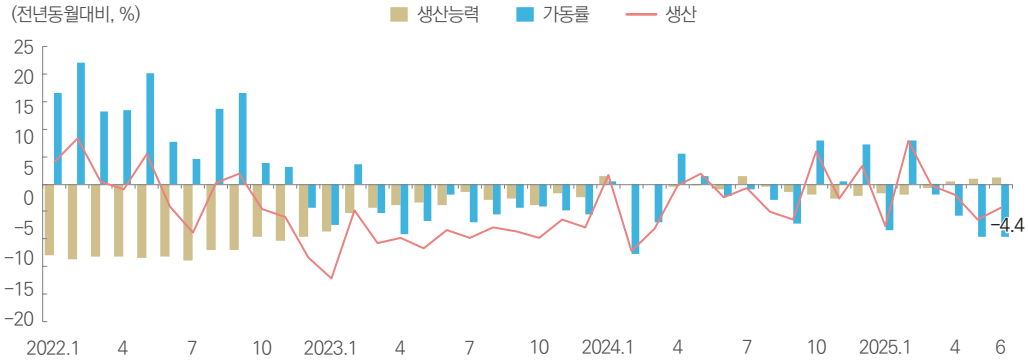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섬유: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6월 섬유 생산은 가동률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0 → (5월) -6.4 → (6월) -4.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5.7 → (5월) -9.5 → (6월) -9.5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6 → (5월) 1.0 → (6월) 1.3

| 그림 22 | 섬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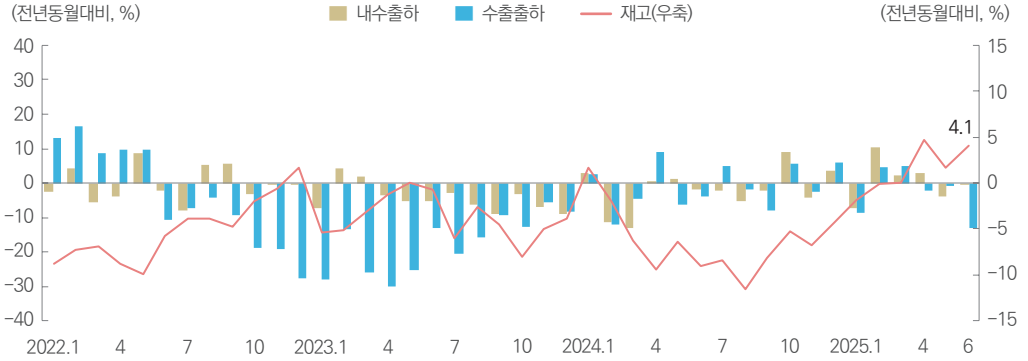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섬유 재고는 수출출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8 → (5월) 1.7 → (6월) 4.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3.0 → (5월) -3.8 → (6월) -0.5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0 → (5월) -0.9 → (6월) -13.0

| 그림 23 | 섬유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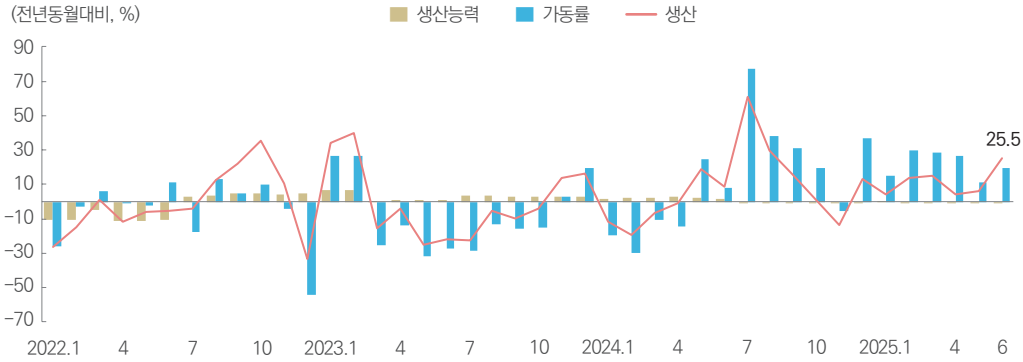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무선통신기기: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6월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5.5%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4.0 → (5월) 6.3 → (6월) 25.5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6.3 → (5월) 11.3 → (6월) 19.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7 → (5월) -0.7 → (6월) -0.3

| 그림 24 |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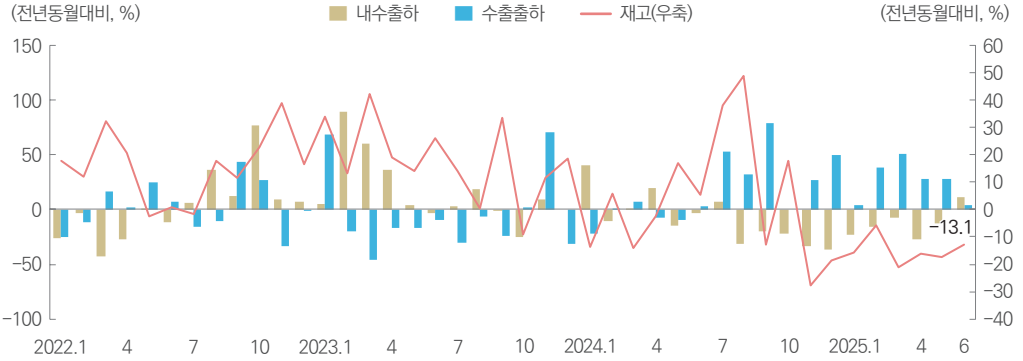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무선통신기기 재고는 내수출하와 수출출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6.2 → (5월) -17.4 → (6월) -13.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6.8 → (5월) -12.6 → (6월) 10.9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7.6 → (5월) 28.3 → (6월) 4.4

| 그림 25 | 무선통신기기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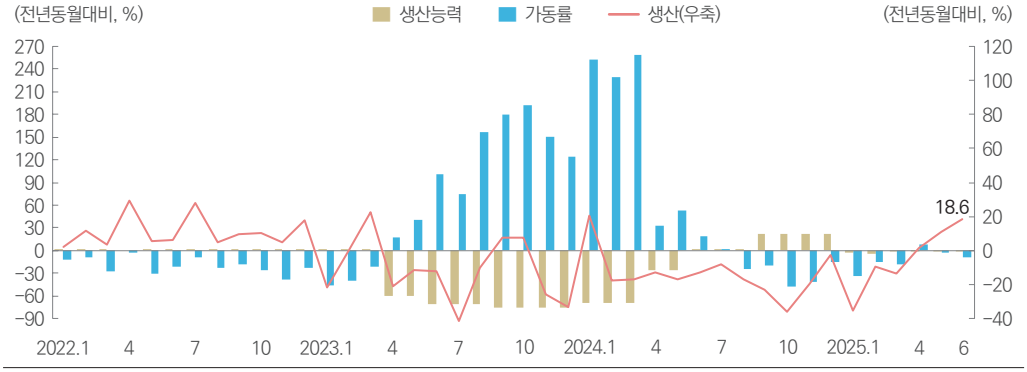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컴퓨터·주변장치: 전년동월대비 6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6월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6%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4 → (5월) 11.2 → (6월) 18.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7.9 → (5월) -1.9 → (6월) -9.1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7 → (5월) -0.7 → (6월) -0.7

| 그림 26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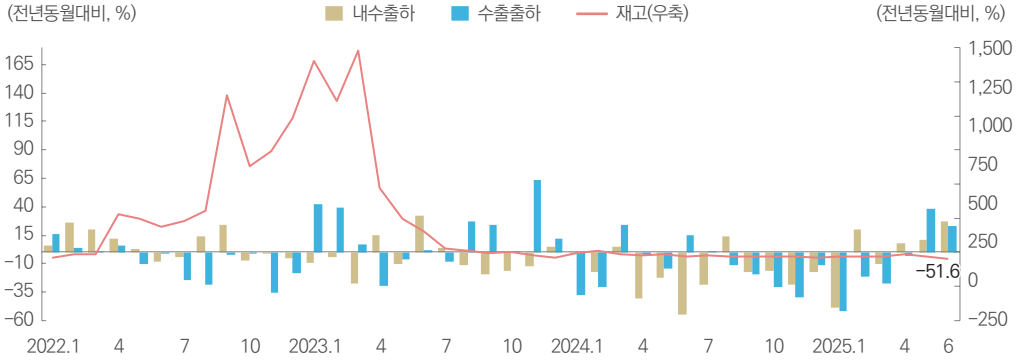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6월 컴퓨터·주변장치 재고는 내수출하와 수출출하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1.6%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4.1 → (5월) -33.9 → (6월) -51.6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8.2 → (5월) 10.7 → (6월) 26.9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3.5 → (5월) 38.4 → (6월) 23.2

| 그림 27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주: 코로나 시기 재고 소진과 코로나 이후 급격한 재고 증가로 2022년 하반기부터 재고 증감률이 급증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Box 1]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로 살펴본 권역별 수출입 구조

■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작성됨**

소재·부품은 "상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지칭함[1)]

■ **25.6월 기준 우리나라 소부장산업의 권역별 수출입은 아시아, 북미, 유럽의 비중이 높음**

소부장산업의 수출은 아시아(62.5%), 북미(18.6%), 유럽(11.2%) 순

- 국가별로는 중국(23.4%), 미국(17.9%), 베트남(12.5%) 순

소부장산업의 수입은 아시아(69.6%), 유럽(15.6%), 북미(10.5%) 순

- 국가별로는 중국(28.4%), 일본(13.6%), 대만(11.1%), 미국(10.5%) 순

■ **소부장산업에 국한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액(314억 달러)이 수입액(224억 달러)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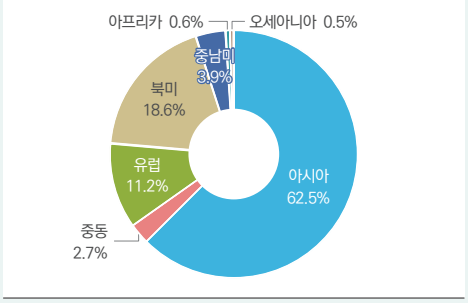
대다수 국가와의 교역에서 우리나라 소부장산업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며, 이는 중국, 미국,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두드러짐

- (중국) 수출액(73억 달러) ▶ 수입액(64억 달러)
- (미국) 수출액(56억 달러) ▶ 수입액(23억 달러)
- (베트남) 수출액(39억 달러) ▶ 수입액(13억 달러)
- (인도) 수출액(12억 달러) ▶ 수입액(2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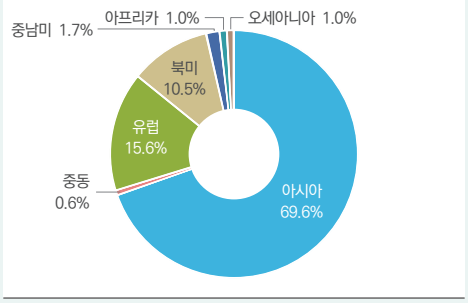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소부장산업의 수출액이 수입액의 1/3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 소부장산업의 높은 일본 의존도를 보여줌

- (일본) 수출액(117억 달러) ◀ 수입액(305억 달러)

소부장산업 권역별 수출 비중



소부장산업 권역별 수입 비중



자료: 통계청, 「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
주: 2025년 6월 기준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의되며, 구체적인 범위와 업종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3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도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7.2%)과 도매업(3.4%)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국산차 판매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가 증가하였고 AI서버 관련 고사양 컴퓨터 부품 수출이 늘어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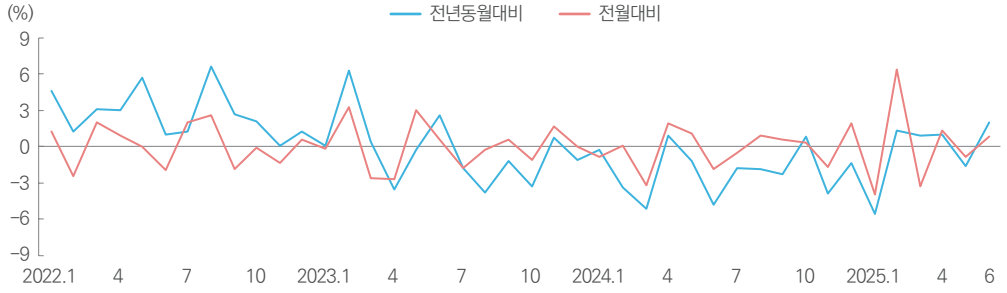
전월대비로는 소매업(1.3%), 기타 전문도매업(5.1%), 기타 상품전문소매업(5.0%)을 중심으로 0.8% 증가하였는데, 소매업의 경우 이른 무더위 및 할인행사로 에어컨및 냉방기기 판매 증가, 기타 전문도매업의 경우 연료 판매 증가,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의 경우 화장품 판매가 늘어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0 → (5월) -1.6 → (6월) 2.0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1.3 → (5월) -0.9 → (6월) 0.8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4.6%)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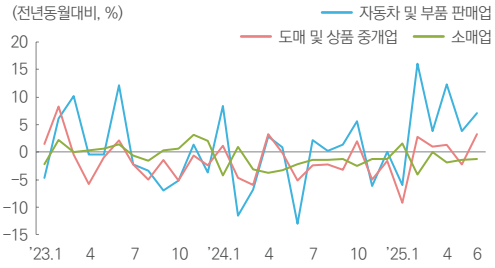
- 승용차(15.4%)와 의약품(6.7%)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매품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그림 28 | 도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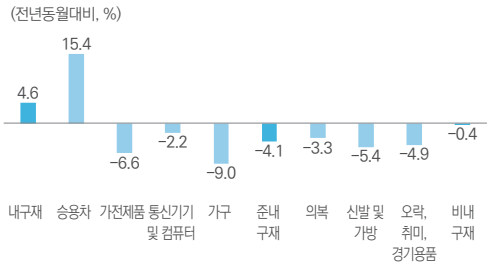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9 | 도소매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0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



자료: 통계청

■ 운수 및 창고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운수 및 창고업 생산은 수상운송업(22.0%)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증가

-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된 프론트로딩(Front-loading) 현상으로 해상 화물 예약이 단기간 급증하면서 컨테이너 운송지수가 상승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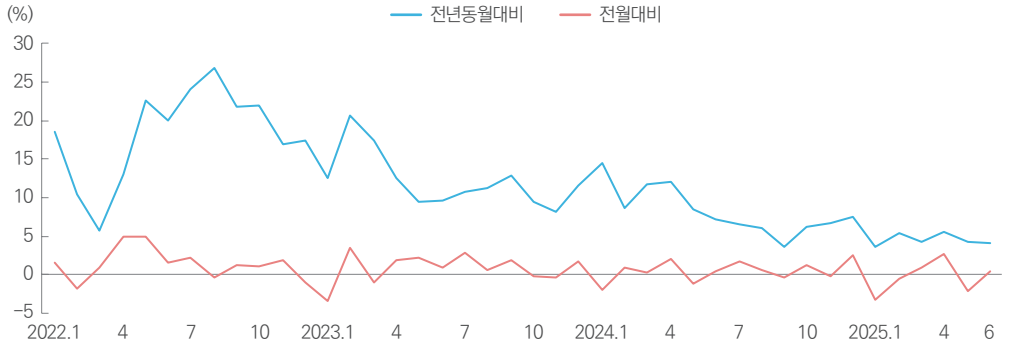
※ 미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해상 화물 예약이 급증

※ 이에 따라 해상운임 단가는 6월 6일 기준 SCFI(2,240.35), CCFI(1,154.98)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 참고로 해상 물동량은 6월 127.8백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

전월대비로는 0.5%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수상운송업(4.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2.5%)이 증가한 반면 항공여객운송업이 6.1% 감소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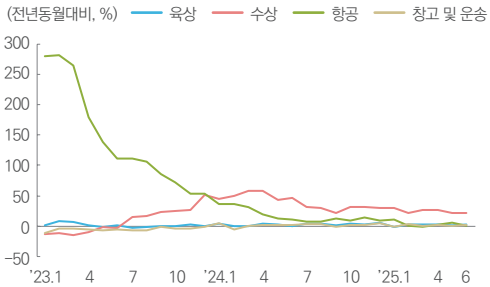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5.6 → (5월) 4.2 → (6월) 4.0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2.7 → (5월) -2.2 → (6월) 0.5

| 그림 31 | 운수 및 창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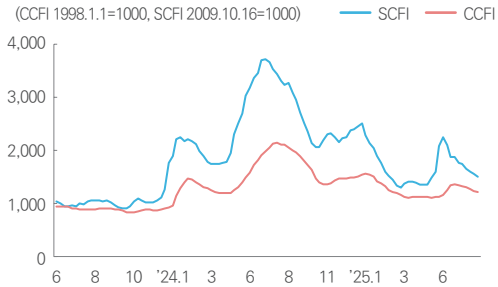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2 | 운수 및 창고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3 | 국외 해상운송지수 추이



자료: 한국관세물류협회(KCLA)

■ 숙박 및 음식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국인의 국내 관광지출이 줄어든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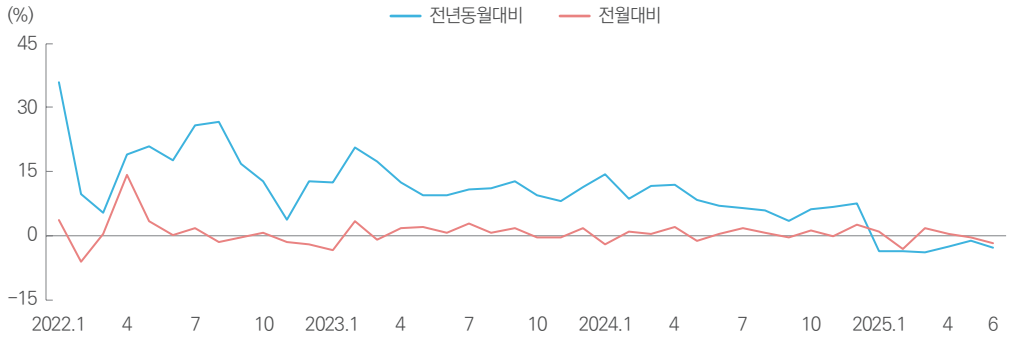
- 특히 숙박업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7.7% 감소하였는데, 이는 호텔과 리조트 등 고가 숙소에 대한 RevPAR(판매가능한객실당매출)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저하된 데 기인[2)]

  ※ 2025년 2분기 호텔 및 리조트의 OCC(객실점유율)와 ADR(평균 객단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1%, 11.4% 감소

전월대비로는 숙박업(-5.8%)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3.6%)을 중심으로 1.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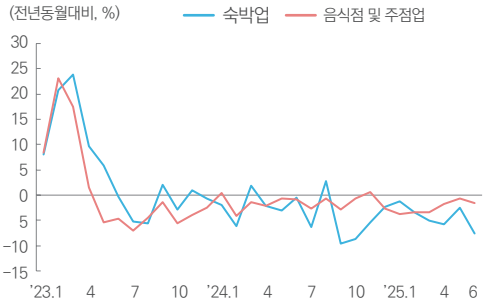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2.5 → (5월) -1.1 → (6월) -2.7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0.5 → (5월) -0.2 → (6월) -1.7

| 그림 34 |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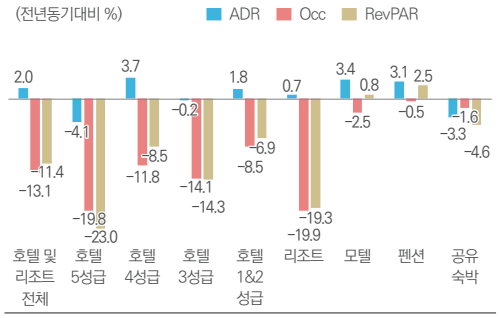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5 | 숙박음식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6 | 숙소유형별 ADR/OCC/RevPAR 변화율



주: 2024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 변화율
자료: 야놀자 리서치

2) 야놀자 리서치, "2025년 2분디 국내 숙박업 동향보고서," 2025.7.28.

■ 금융 및 보험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보험 및 연금업(22.9%),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11.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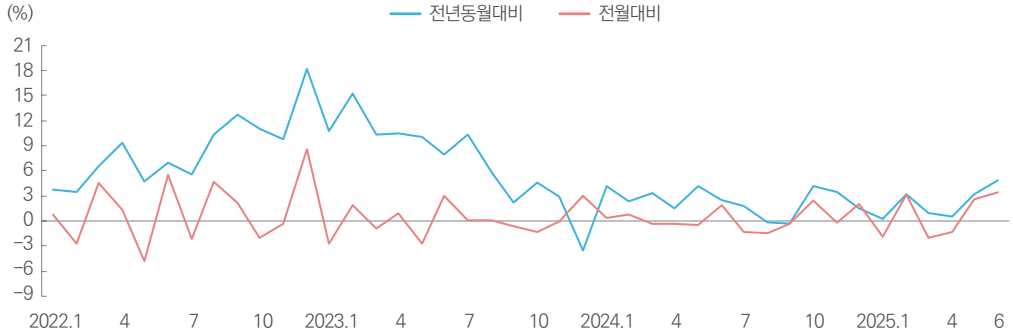
- 보험 및 연금업 중 연금 및 공제업이 전년동월대비 56.4%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인공제회의 예금상품 이자율이 7월부터 인하하면서 6월 가입자가 증가한 데 기인

전월대비로는 기타금융업(10.9%), 연금 및 공제업(17.2%), 금융지원서비스업(20.6%)을 중심으로 3.4% 증가하였는데, 금융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310억 건, 425조원으로 전월대비 18.7%, 45.7% 증가한 데 기인

※ 주식거래량(억건): ('25.4월) 328 → (5월) 261 → (6월) 310
※ 주식거래대금(조원): ('25.4월) 313 → (5월) 292 → (6월)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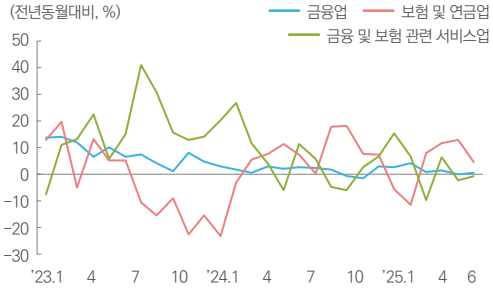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0.5 → (5월) 3.2 → (6월) 4.8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1.3 → (5월) 2.6 → (6월) 3.4

| 그림 37 |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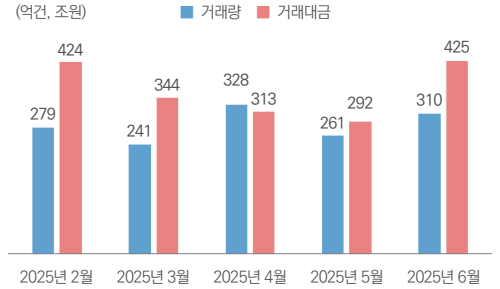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8 | 금융보험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9 | 주식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정보통신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정보통신업 생산은 우편통신업(7.5%), 정보서비스업(6.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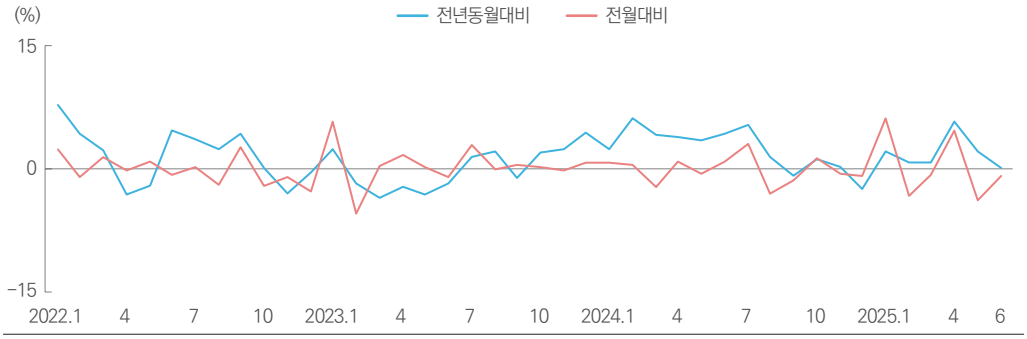
-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가상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

  ※ 비트코인은 6월 종가기준 107,171 USD/BTC로 전년동기대비 70.8% 증가

전월대비로는 0.8% 감소하였는데, 공영우편업(-13.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2%), 기타정보서비스업(-1.8%)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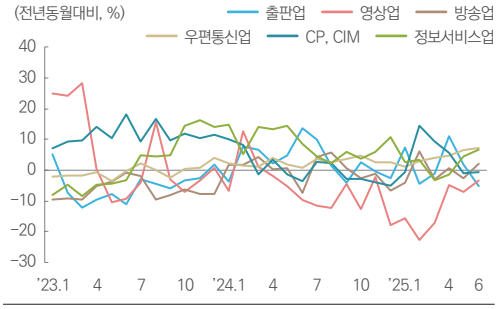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주요 게임사업체의 신작 매출이 전월대비 감소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5.9 → (5월) 2.1 → (6월) 0.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4.8 → (5월) -3.8 → (6월) -0.8

| 그림 40 | 정보통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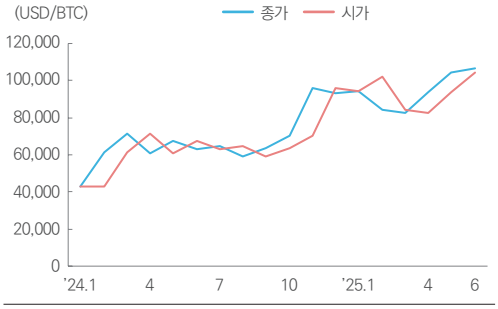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1 | 정보통신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2 |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 Investing.com

■ 부동산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3.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 건설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5.1%)의 생산이 감소한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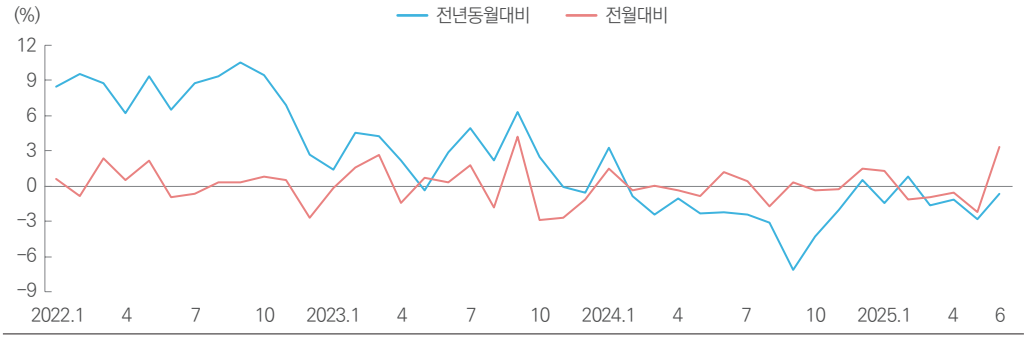
※ 공동주택 분양이 6월 기준 1.5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0.8% 감소, 1~6월 기준 6.8만호로 39.6% 감소

전월대비로는 3.4%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7.6%)의 증가폭이 컸는데, 이는 법원 경매 및 공매 건수 증가에 따라 감정평가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

※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감정평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경매 접수가 4월 기준 10,534건으로 전월대비 5.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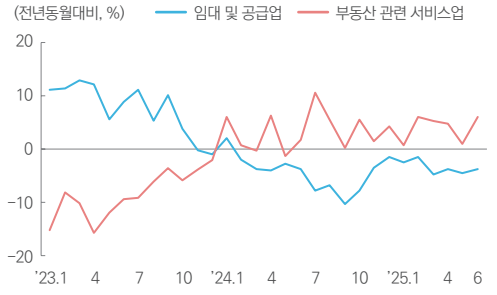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2 → (5월) -2.8 → (6월) -0.7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0.6 → (5월) -2.2 → (6월) 3.4

| 그림 43 | 부동산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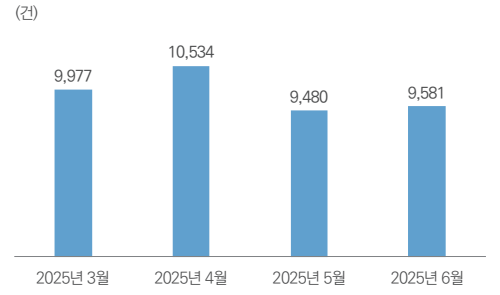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4 | 부동산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5 | 법원 경매 접수 추이



자료: 법원 통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업(4.8%) 중 병원(8.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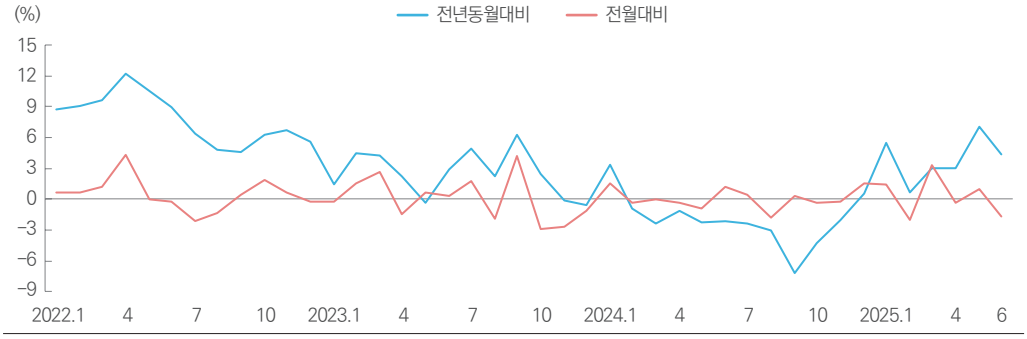
- 2024년 6월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진찰이 중단되었으나 올해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이 증대된 데 기인

전월대비로는 보건업(-2.2%) 중 의원(-3.6%)을 중심으로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독감 환자가 감소한 데 기인

※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천명당 의사환자분율은 2025년 4월 12일(15주차) 기준 21.5명까지 증가하였으나 6월 말(24주차) 4.2명으로 감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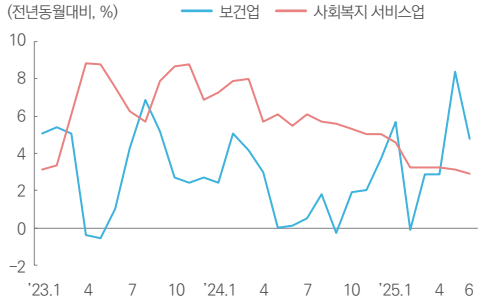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3.0 → (5월) 7.1 → (6월) 4.4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0.4 → (5월) 1.0 → (6월) -1.7

| 그림 46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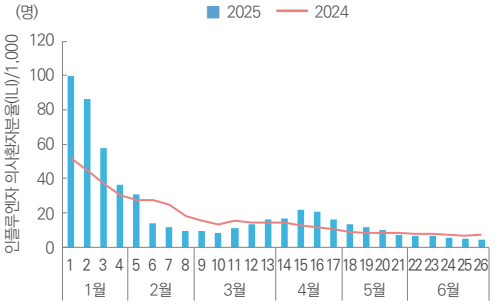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7 | 보건사회복지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8 |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현황 추이



자료: 질병관리청, "주요 감염병 통계"

3) 감염병포탈, 〈https: //npt.kdca.go.kr/pot/is/st/influ.do, 접속: 2025.8.10.〉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3.9%)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스포츠 서비스업(-3.9%)의 경우 경기장 운영업(-10.1%)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6.3%)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였고,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4.0%)의 경우 오락장 운영업(-6.5%)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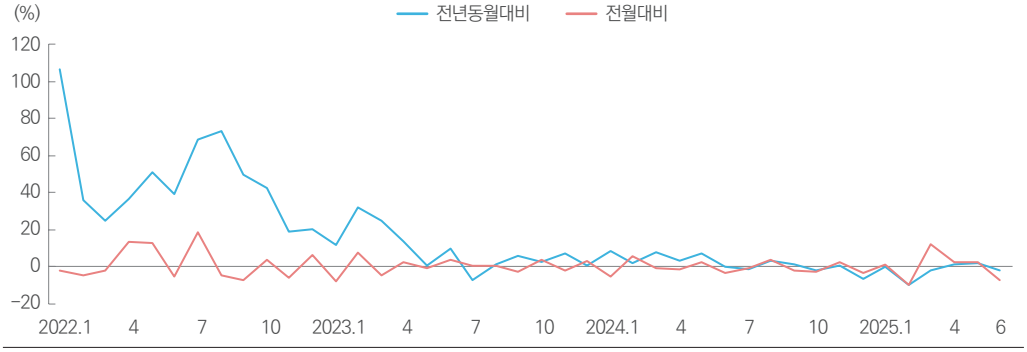
  ※ 프로축구 경기 일정 조정, 테마파트 입장객 감소 등으로 입장객이 감소

  ※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업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2 → (5월) 1.2 → (6월) -1.7[4)]

전월대비로는 7.4% 감소하였는데,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1.8%,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이 5.4% 감소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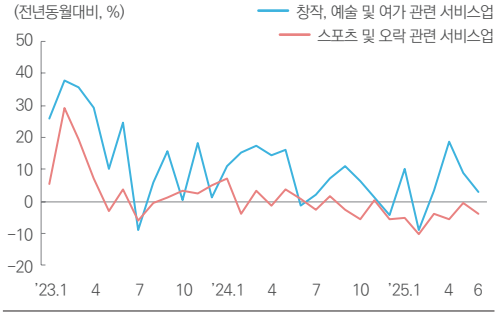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0 → (5월) 2.1 → (6월) -1.9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2.8 → (5월) 2.6 → (6월) -7.4

| 그림 49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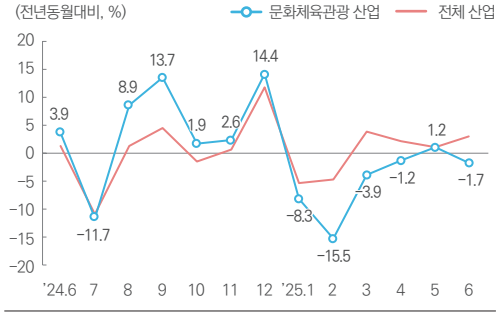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50 | 예술스포츠여가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51 |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업생산지수 추이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data.kcti.re.kr/, 접속: 2025.8.13.〉

Ⅱ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 2025년 7월 중 주요 13대 산업[5)6)]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년동월대비: 13대 산업의 수출은 466.2억달러로 이차전지(-21.1%), 무선통신기기(-17.5%), 일반기계(-17.2%) 등이 감소하였으나, 조선(107.6%), 반도체(31.6%), 자동차(4.3%) 등이 늘며 5.3% 증가

- 일반기계 수출, 석유 수출은 12개월 이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반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자동차 수출도 6월에 이어 증가
- 수출액(억달러): ('25.4월) 441.3 → (5월) 444.4 → (6월) 459.1 → (7월) 466.2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7 → (5월) -1.7 → (6월) 2.7 → (7월) 5.3

전월대비: 바이오헬스(-29.0%), 조선(-10.5%), 자동차(-4.8%) 등이 감소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18.2%), 석유(15.8%), 철강(15.7%) 등이 증가하며 1.5% 증가

- 증감률(전월대비, %): ('25.4월) -2.7 → (5월) 0.7 → (6월) 3.3 → (7월) 1.5

| 표 1 |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13대 산업(수출액)	433.9	452.2	446.9	442.6	441.3	444.4	459.1	466.2	1.5
13대 산업	16.4	15.7	7.9	15.2	1.7	-1.7	2.7	5.3	
반도체	56.1	54.4	50.9	50.2	17.2	21.2	11.6	31.6	-1.7
자동차	8.4	2.3	-3.2	-6.3	-2.1	-5.5	2.4	4.3	-4.8
화학	13.0	7.6	11.8	18.2	-12.0	-18.8	-14.1	-10.1	9.9
일반기계	-0.1	-3.9	-8.3	17.7	-6.3	-5.4	-7.4	-17.2	12.8
석유	18.2	6.5	10.5	15.7	-15.8	-21.3	-1.7	-6.3	15.8
철강	-5.8	-12.0	-24.3	-5.2	5.1	-12.4	-8.2	-2.9	15.7
조선	5.7	116.6	-39.8	-36.5	17.3	4.4	63.6	107.6	-10.5
컴퓨터주변장치	32.0	26.7	37.3	20.1	-10.3	-10.0	-15.8	-12.8	2.9
무선통신기기	11.3	9.3	3.8	53.3	26.7	3.8	-3.7	-17.5	18.2
섬유	1.0	1.4	-11.2	1.3	-3.4	-11.9	-6.2	-5.5	0.7
가전	9.3	6.8	-0.3	9.0	-4.7	-14.9	-15.5	-11.9	15.2
이차전지	-20.2	-19.5	-20.5	-0.3	13.1	-18.5	-19.6	-21.1	-1.9
바이오헬스	21.1	18.7	-6.1	28.9	14.6	4.4	36.5	-4.8	-29.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5) 생산과 수출의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통계청의 업종별 산업분류(KSIC)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품목별 산업분류기준(MTI)를 매칭하여 분류
6) 자동차(수송기계,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 및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포함

반도체 수출은 전방 IT 산업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7월) 111.8(50.2%) → ('25.7월) 147.1(31.6%)
- DRAM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4.4Q) 1.47 → ('25.1Q) 1.35 → (2Q) 2.12 → (7월) 3.9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EU, CIS 등의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6월에 이어 수출 증가세 지속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7월) 74.3(-6.3%) → ('25.7월) 77.5(4.3%)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7월) 53.6(-9.2%) → ('25.7월) 58.3(8.8%)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7월) 20.7(2.3%) → ('25.7월) 19.2(-7.2%)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동월의 해수 담수화 설비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와 제조, 건설기계 시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수출 감소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7월) 51.7(17.7%) → ('25.7월) 42.8(-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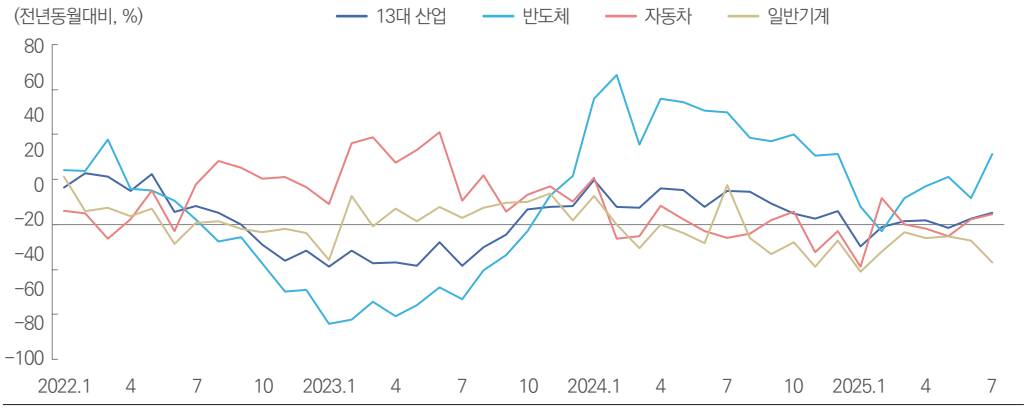
이차전지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주요국 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출 감소세 지속

- 이차전지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7월) 7.4(-0.3%) → ('25.7월) 5.8(-21.1%)
- 탄산리튬 가격(CNY/Kg): ('24.7월) 84.4 → ('25.6월) 58.8 → ('25.7월) 65.6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신규 스마트폰 제품의 출시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 아세안 시장의 휴대폰 부품 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7월) 14.6(53.3%) → ('25.7월) 12.0(-17.5%)

| 그림 1 | 13대 산업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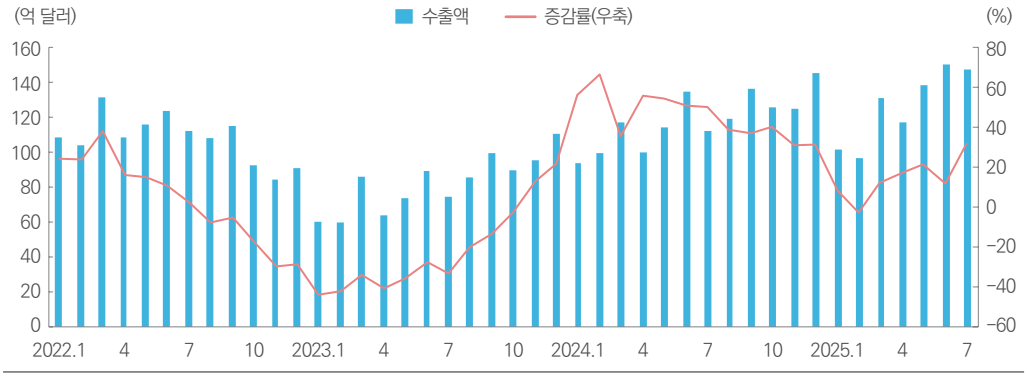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6% 증가하여 147.1억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21.2 → (6월) 11.6 → (7월) 31.6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25.5월) 137.9 → (6월) 149.7 → (7월) 147.1

| 그림 2 | 반도체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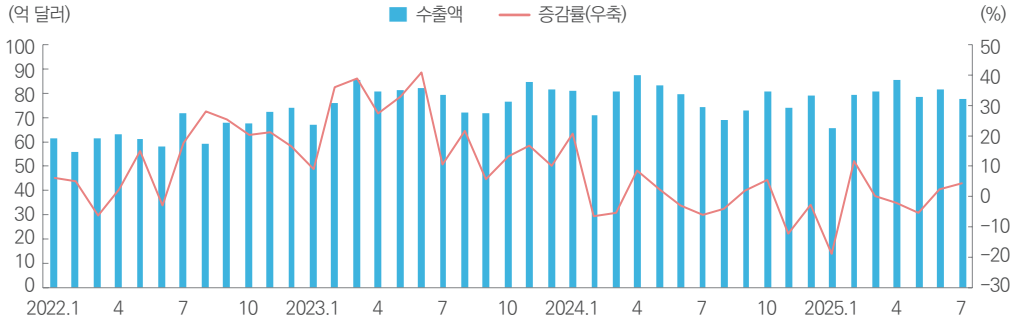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3% 증가하여 77.5억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5.5 → (6월) 2.4 → (7월) 4.3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25.5월) 78.6 → (6월) 81.4 → (7월) 77.5

| 그림 3 | 자동차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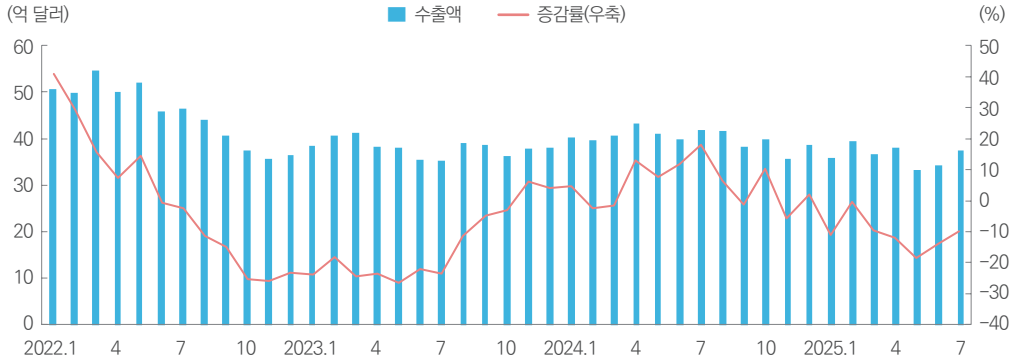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화학: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하여 37.5억달러를 기록

- 화학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18.8 → (6월) -14.1 → (7월) -10.1
- 화학 수출액(억달러): ('25.5월) 33.3 → (6월) 34.2 → (7월) 37.5

| 그림 4 | 화학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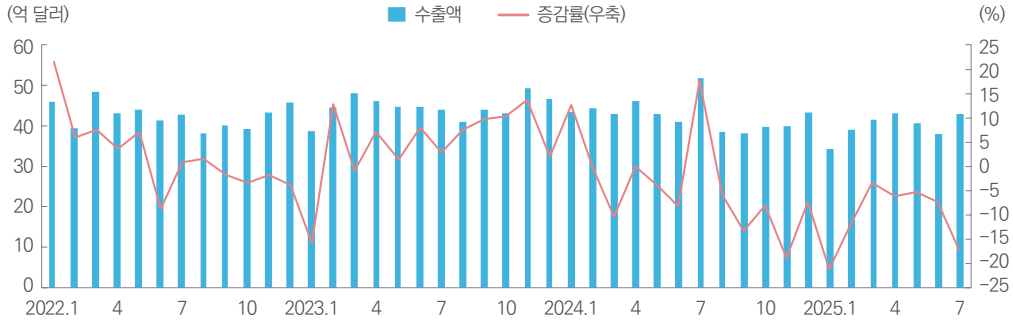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일반기계: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2% 감소하여 42.8억달러를 기록

- 일반기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5.4 → (6월) -7.4 → (7월) -17.2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 ('25.5월) 40.6 → (6월) 37.9 → (7월) 42.8

| 그림 5 | 일반기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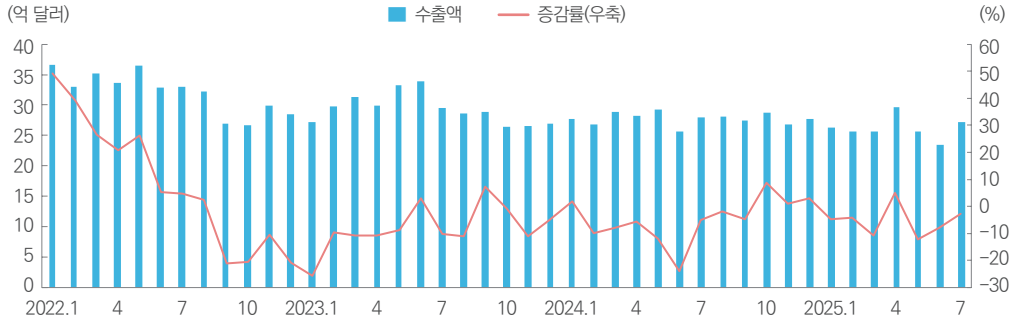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철강: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하여 27.2억달러를 기록

- 철강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12.4 → (6월) -8.2 → (7월) -2.9
- 철강 수출액(억달러): ('25.5월) 25.6 → (6월) 23.5 → (7월) 27.2

| 그림 6 | 철강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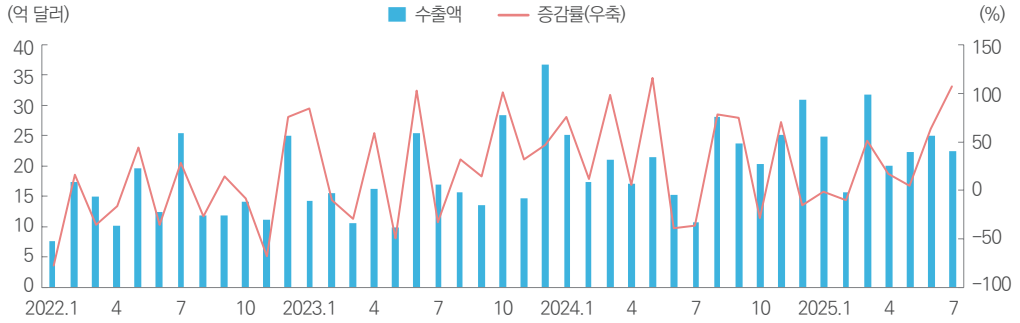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조선: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7.6% 증가하여 22.4억달러를 기록

- 조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4.4 → (6월) 63.6 → (7월) 107.6
- 조선 수출액(억달러): ('25.5월) 22.4 → (6월) 25.0 → (7월) 22.4

| 그림 7 | 조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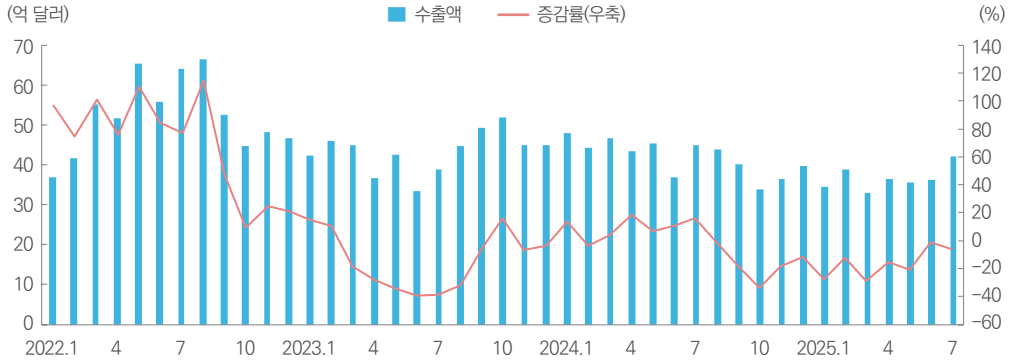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석유: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하여 42.1억달러를 기록

- 석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21.3 → (6월) -1.7 → (7월) -6.3
- 석유 수출액(억달러): ('25.5월) 35.6 → (6월) 36.3 → (7월) 42.1

| 그림 8 | 석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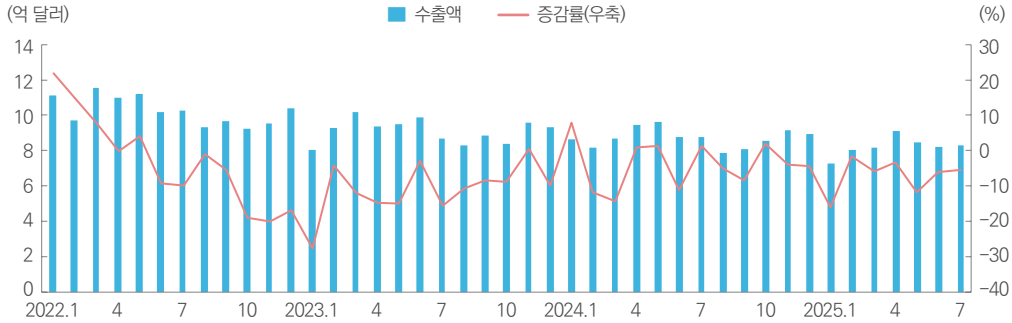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섬유: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하여 8.3억달러를 기록

- 섬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11.9 → (6월) -6.2 → (7월) -5.5
- 섬유 수출액(억달러): ('25.5월) 8.5 → (6월) 8.2 → (7월) 8.3

| 그림 9 | 섬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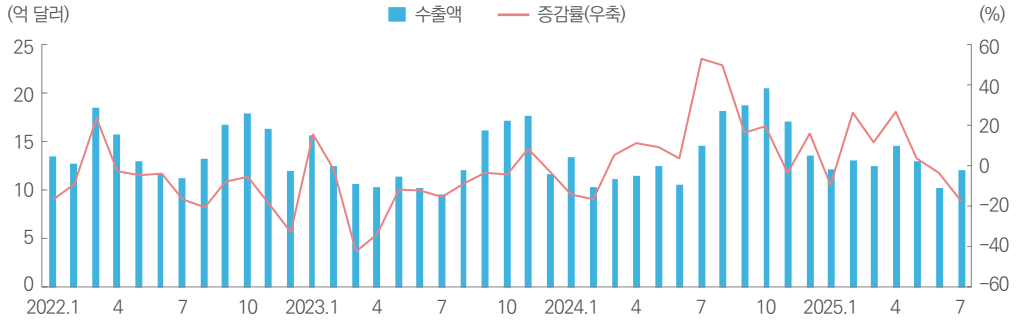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무선통신기기: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5% 감소하여 12.0억달러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3.8 → (6월) -3.7 → (7월) -17.5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 ('25.5월) 13.0 → (6월) 10.2 → (7월) 12.0

| 그림 10 | 무선통신기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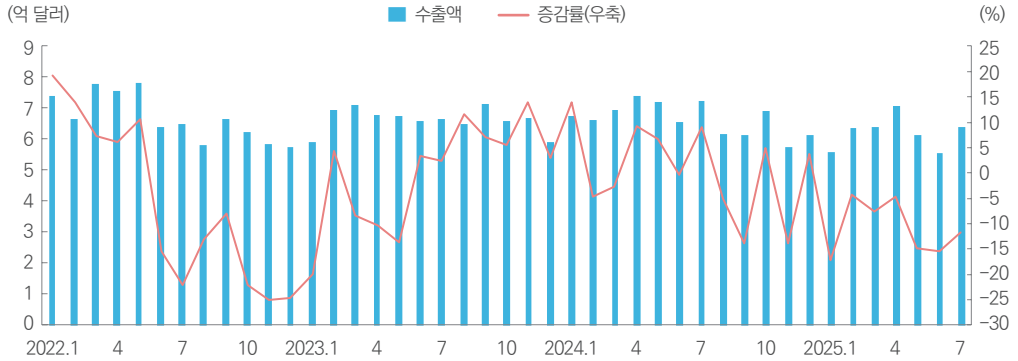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가전: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하여 6.4억달러를 기록

- 가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14.9 → (6월) -15.5 → (7월) -11.9
- 가전 수출액(억달러): ('25.5월) 6.1 → (6월) 5.5 → (7월) 6.4

| 그림 11 | 가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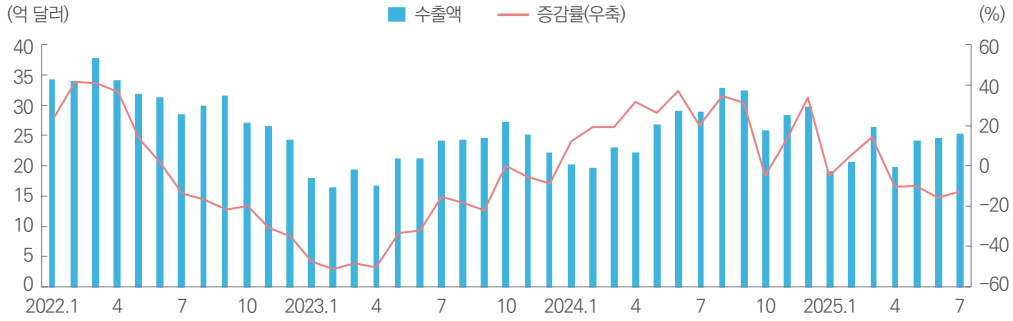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컴퓨터·주변장치: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8% 감소하여 25.2억달러를 기록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10.0 → (6월) -15.8 → (7월) -12.8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액(억달러): ('25.5월) 24.1 → (6월) 24.5 → (7월) 25.2

| 그림 12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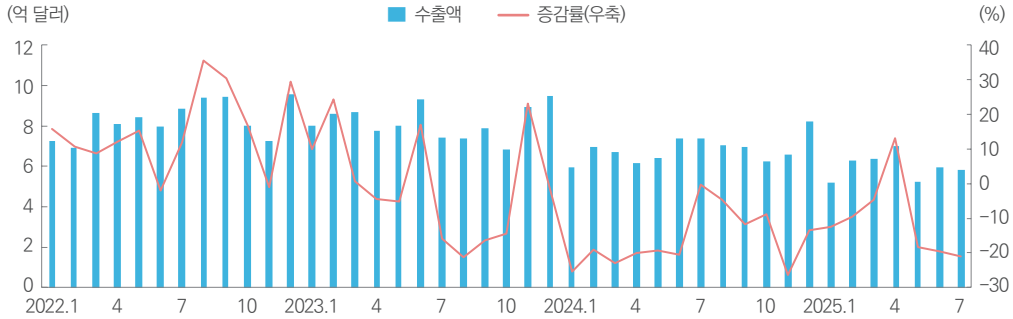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이차전지: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1% 감소하여 5.8억달러를 기록

- 이차전지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18.5 → (6월) -19.6 → (7월) -21.1
- 이차전지 수출액(억달러): ('25.5월) 5.2 → (6월) 5.9 → (7월) 5.8

| 그림 13 | 이차전지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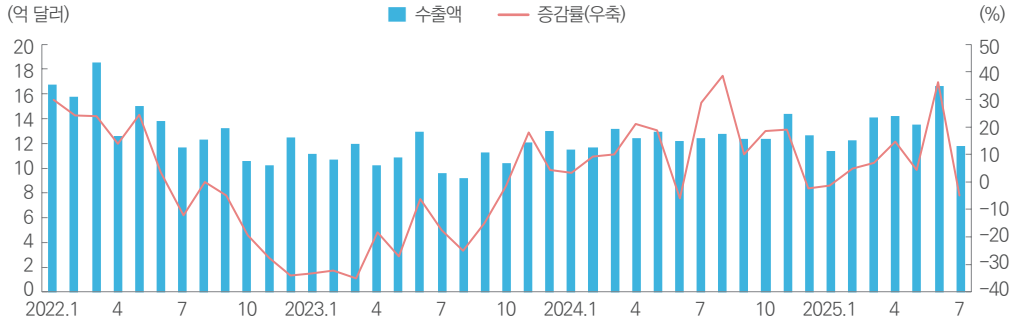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바이오헬스: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하여 11.8억달러를 기록

- 바이오헬스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4.4 → (6월) 36.5 → (7월) -4.8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달러): ('25.5월) 13.5 → (6월) 16.6 → (7월) 11.8

| 그림 14 | 바이오헬스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유망소비재[7]: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전월대비 10.6% 감소하여 37.2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5월) 5.6 → (6월) 23.6 → (7월) 2.7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액(억 달러): ('25.5월) 38.4 → (6월) 41.6 → (7월) 37.2

| 표 2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24				2025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유망소비재(수출액)	37.7	36.4	33.7	36.2	40.9	38.4	41.6	37.2	−10.6
유망소비재	24.2	15.6	0.7	26.1	8.6	5.6	23.6	2.7	
농수산식품	14.4	8.5	1.6	24.2	8.5	5.5	7.6	3.8	4.5
화장품	25.8	14.4	5.6	29.5	20.8	8.3	21.9	18.1	3.5
패션의류	−15.1	−5.2	−13.4	−4.4	8.7	−2.3	15.2	0.8	−16.4
생활유아용품	45.0	16.7	5.9	20.9	−14.5	−4.5	18.1	−1.3	−7.1
의약품	29.6	34.2	−5.4	41.7	21.7	14.1	53.1	−10.3	−37.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7)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5대 유망소비재를 확정

2 가공단계별 수출

■ 6월 가공단계별「수출」중 자본재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증가

1차산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6% 증가, 전월대비 20.3% 증가

• 1차산품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7.0 → (5월) -7.5 → (6월) 9.6

소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전월대비 1.0% 증가

• 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1.3 → (5월) -3.3 → (6월)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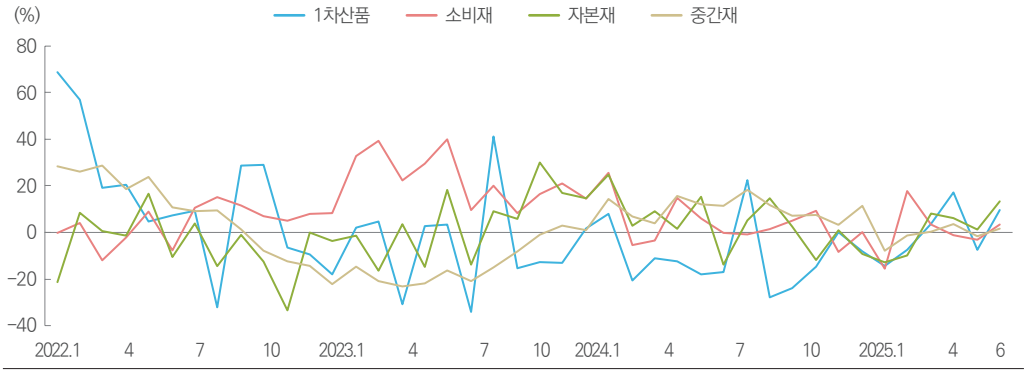
자본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전월대비 0.3% 증가

• 자본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6.3 → (5월) 1.3 → (6월) 13.6

중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전월대비 4.7% 증가

•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4월) 3.6 → (5월) -1.6 → (6월) 1.7

| 그림 15 |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3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1차산품	-12.4	-18.0	-17.1	17.0	-7.5	9.6	20.3
소비재	14.9	5.9	-0.3	-1.3	-3.3	3.3	1.0
자본재	1.7	15.6	-13.9	6.3	1.3	13.6	0.3
중간재	15.9	12.2	11.4	3.6	-1.6	1.7	4.7

자료: 한국무역협회

III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가. 국제 가격

■ **2025년 7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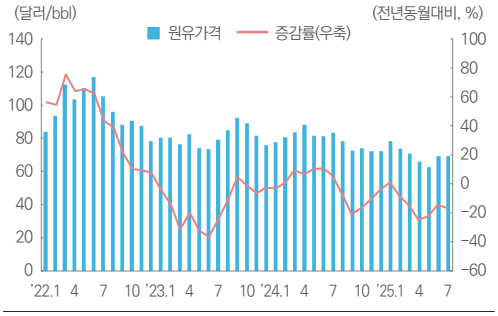
원유 가격은 69.2달러로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16.9% 하락

- 원유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25.1 → (5월) -23.0 → (6월) -14.8 → (7월) -16.9

국제 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6월 중순 76.89달러(Dubai 기준, 5월말 대비 20.5%)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OPEC+[8] 증산의 지속과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고 7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OPEC+는 당초 월간 계획량(13.5만b/d)보다 많은 41.1만b/d을 증산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증산량은 178만b/d[9]에 이를 전망(Reuters, 6.27)

| 그림 1 | 원유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1 | 원유 가격 동향

(단위: 달러/bbl, %)

구분	2024	2025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7월	5월	6월	7월		
Brent	85.3	64.2	71.5	71.0	-0.7	-16.8
Dubai	83.9	63.0	68.5	69.2	1.1	-17.5
WTI	80.5	61.0	67.5	67.4	-0.1	-16.3
Crude oil average	83.3	62.7	69.1	69.2	0.1	-16.9

주: Brent, Dubai, WTI의 평균
자료: 세계은행

8) 석유수출기구(OPEC)
9) 세계 석유 수요(2024년, 1억 300만b/d) 대비 1.73%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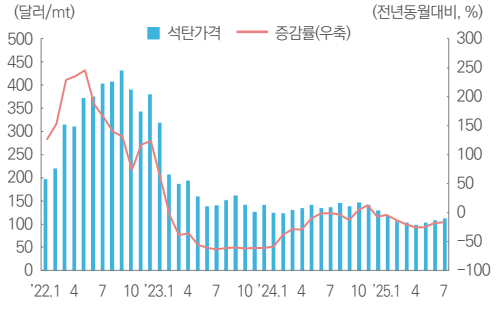
■ 2025년 7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석탄 가격은 톤당 112.9달러(호주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17.9%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3.5% 상승

- 석탄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26.9 → (5월) -26.5 → (6월) -19.3 → (7월) -17.9
- 석탄 가격(달러/mt): ('25.4월) 98.6 → (5월) 104.4 → (6월) 109.0 → (7월) 112.9

석탄 가격 하락은 주요 생산국 공급 과잉, 중국·인도·일본의 수입 감소, 주요국 저탄소 에너지원 선호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 감소 등에 기인

| 그림 2 | 석탄 가격 추이



주: 호주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2 | 석탄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4	2025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7월	5월	6월	7월		
호주	137.6	104.4	109.0	112.9	3.5	-17.9
남아프리카	105.3	94.3	93.8	93.6	-0.2	-11.1
평균	121.4	99.4	101.4	103.3	1.8	-15.0

자료: 세계은행

■ 2025년 7월 중 「천연가스(LNG)」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천연가스지수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발전용 수요가 늘면서 전월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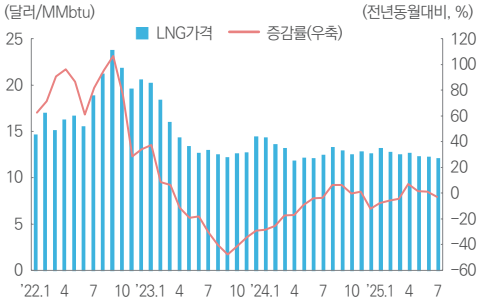
- 천연가스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4월) 48.6 → (5월) 23.6 → (6월) 14.8 → (7월) 23.4
- 천연가스지수(2010=100): ('25.4월) 105.0 → (5월) 101.6 → (6월) 103.8 → (7월) 102.2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2.1달러(일본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1.3%, 전월대비 3.2% 하락

- 미국의 기록적인 생산량 증가와 풍부한 재고량, 노르웨이 가스 수출 재개 등으로 공급이 늘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10)]
- 천연가스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6.8 → (5월) 1.3 → (6월) 1.1 → (7월) -3.2
- 천연가스(달러/MMbtu): ('25.4월) 12.68 → (5월) 12.32 → (6월) 12.26 → (7월) 12.10

10) 참고로 2025년 상반기 글로벌 LNG공급은 전년동기대비 4%(12bcm)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Plaquemines LNG 시설이 2024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하면서 공급량이 증가한 데 기인 (IEA, "Gas Market Report, Q3-2025, July 2025. "https://www.iea.org/reports/gas-market-report-q3-2025/executive-summary, 접속: 2025.8.16.))

| 그림 3 | LNG 가격 추이



주: 일본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3 | LNG 가격 동향

(단위: 달러/MMbtu, %)

구분	2024	2025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7월	5월	6월	7월		
미국	2.08	3.12	3.02	3.19	5.6	53.8
유럽	10.35	11.66	12.37	11.62	−6.0	12.3
일본	12.49	12.32	12.26	12.10	−1.3	−3.2

자료: 세계은행

나. 전력

■ 6월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6월 발전량은 47,502GWh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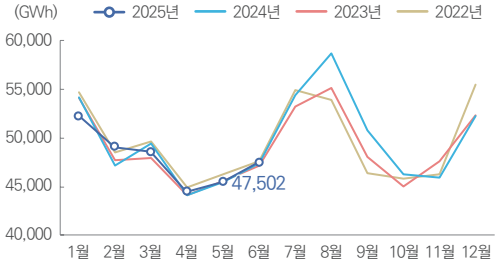
- 발전량(GWh): ('25.4월) 44,417 → (5월) 45,406 → (6월) 47,502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4월) 0.8 → (5월) -0.0 → (6월) 0.4

1~6월 누적 발전량은 287,327GWh로 전년동기간대비 0.1% 감소

- 1~6월 누적 발전량(GWh): ('23년)286,572 → ('24년)287,483 → ('25년)287,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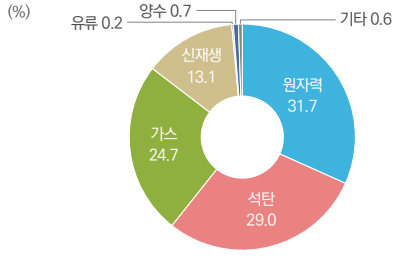
6월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원자력 31.7%, 석탄 29.0%, 가스 24.7%, 신재생 13.1% 순

| 그림 4 | 월별 발전량(전력공급)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5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6월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력 소비를 의미하는 6월 전력판매량은 43,006GWh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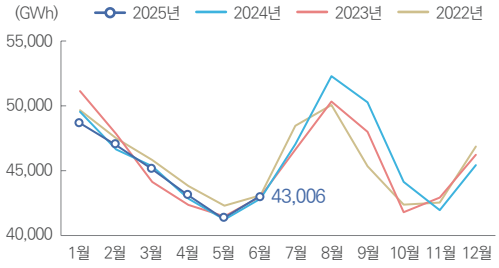
- 전력판매량(GWh): ('25.4월) 43,117 → (5월) 41,219 → (6월) 43,006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4월) 0.8 → (5월) 0.0 → (6월) 0.4

1~6월 누적 전력판매량은 268,360GWh로 전년동기간대비 0.0% 감소

- 1~6월 누적 전력판매량(GWh): ('23년)269,947 → ('24년)268,483 → ('25년)268,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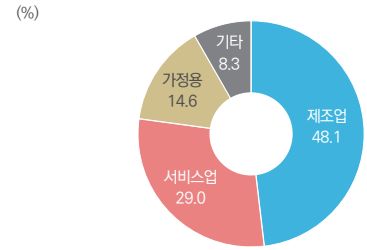
6월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제조업 48.1%, 서비스업 29.0%, 가정용 14.6% 순

| 그림 6 | 월별 전력 판매량(전력수요)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7 |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



주: 기타는 공공용, 농수산업, 광업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6월 「최대전력」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6월 최대전력은 85.6GW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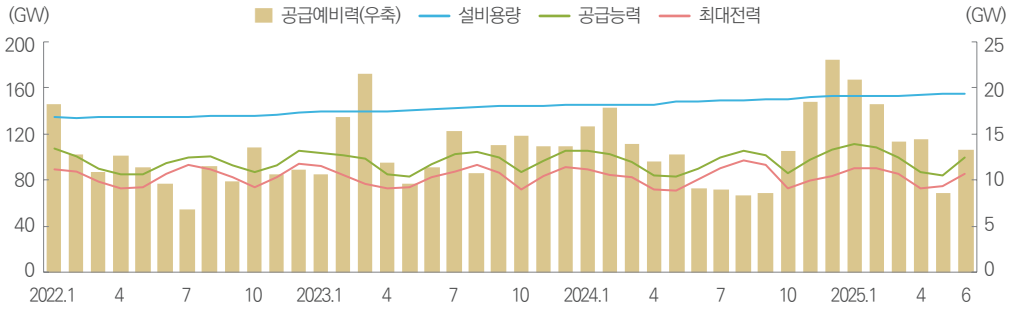
- 최대전력(GW): ('25.4월) 71.7 → (5월) 74.2 → (6월) 85.6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4월) 0.7 → (5월) 6.2 → (6월) 6.9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13.2GW, 전력공급예비율은 15.4%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11)]

- 공급예비력(GW): ('25.4월) 14.3 → (5월) 8.6 → (6월) 13.2
- 공급예비율(%): ('25.4월) 20.0 → (5월) 11.6 → (6월) 15.4

11)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그림 8 | 최대전력 수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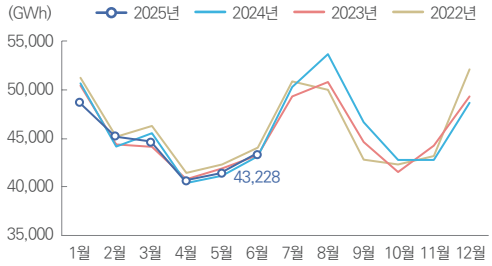
■ 6월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6월 전력거래량[12]은 43,228GWh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전력거래량(GWh): ('25.4월) 40,392 → (5월) 41,271 → (6월) 43,228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4월) 0.6 → (5월) 0.8 → (6월)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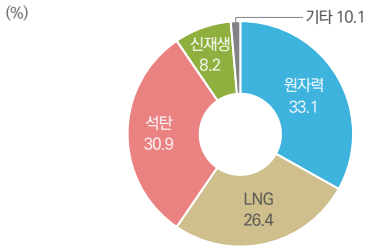
6월 연료원별 비중은 원자력 33.1%, 석탄 30.9%, LNG 26.4%, 신재생 8.2% 순

| 그림 9 |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10 |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비중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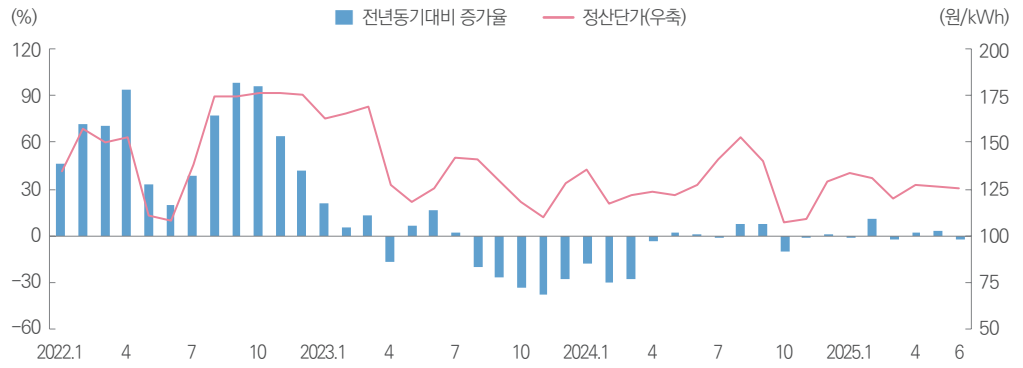
■ 6월 「정산단가」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6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25.7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 하락

- 정산단가(원/kWh): ('25.4월) 126.9 → (5월) 126.5 → (6월) 125.7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4월) 2.5 → (5월) 4.0 → (6월) -1.6

12)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거래량(PPA거래량 불포함)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그림 11 | 정산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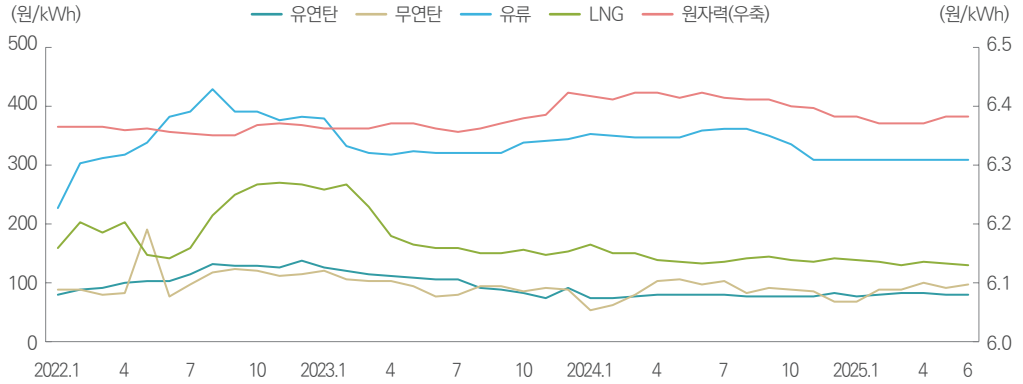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6월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13]는 전년동월대비 원자력, 무연탄, 유류, LNG가 하락하고, 유연탄이 상승

- 연료비단가(원/kWh): (원자력)6.4, (유연탄)79.6, (무연탄)96.7, (유류)307.8, (LNG)127.4
- 연료비단가(전년동월대비, %): (원자력)-0.6, (유연탄)1.7, (무연탄)-0.8, (유류)-14.1, (LNG)-2.5

| 그림 12 |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3)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함

2 비철금속

■ 2025년 7월 「비철금속」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중국의 매수세,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전월대비 1.5% 상승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4월) -5.9 → (5월) -8.4 → (6월) -1.8 → (7월) 3.2
- 비철금속 가격지수(2010=100): ('25.4월) 104.0 → (5월) 106.8 → (6월) 108.7 → (7월) 110.3

알루미늄은 전년동월대비 11.0%, 전월대비 3.2% 상승

- 알루미늄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5.4 → (5월) -4.5 → (6월) 1.1 → (7월) 11.0
- 알루미늄 가격(달러/톤): ('25.4월) 2,372 → (5월) 2,449 → 6월) 2,526 → (7월) 2,606

철광석은 전년동월대비 9.0% 하락, 전월대비 4.0% 상승

- 철광석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13.8 → (5월) -18.4 → (6월) -14.1 → (7월) -9.0
- 철광석 가격(달러/톤): ('25.4월) 97 → (5월) 97 → (6월) 92 → (7월) 97

구리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전월대비 0.7% 하락

- 구리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3.0 → (5월) -6.0 → (6월) 1.9 → (7월) 4.1
- 구리 가격(달러/톤): ('25.4월) 9,177 → (5월) 9,533 → (6월) 9,835 → (7월) 9,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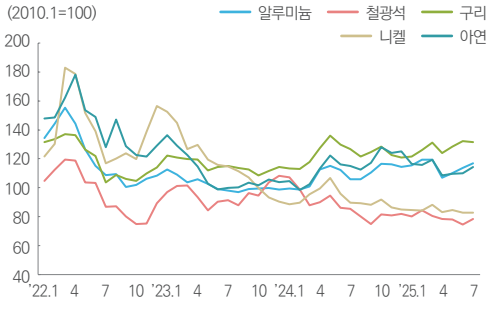
니켈은 전년동월대비 8.0% 하락, 전월대비 0.2% 상승

- 니켈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16.8 → (5월) -21.7 → (6월) -14.3 → (7월) -8.0
- 니켈 가격(달러/톤): ('25.4월) 15,113 → (5월) 15,346 → (6월) 15,003 → (7월) 15,034

아연은 전년동월대비 0.5% 하락, 전월대비 4.1% 상승

- 아연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4.1 → (5월) -10.6 → (6월) -5.5 → (7월) -0.5
- 아연 가격(달러/톤): ('25.4월) 2,622 → (5월) 2,644 → (6월) 2,655 → (7월) 2,763

| 그림 13 | 비철금속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LME

| 표 4 | 비철금속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4	2025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7월	5월	6월	7월		
알루미늄	2,349	2,449	2,526	2,606	3.2	11.0
철광석	107	97	92	97	5.3	-9.0
구리	9,385	9,533	9,835	9,771	-0.7	4.1
니켈	16,335	15,346	15,003	15,034	0.2	-8.0
아연	2,777	2,644	2,655	2,763	4.1	-0.5

자료: 세계은행, LME

3 농산물

■ 2025년 7월 「농산물」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14)]

- 농산물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4월) -0.5 → (5월) 2.0 → (6월) -2.0 → (7월) -2.1
- 농산물 가격지수(2010=100): ('25.4월) 117.5 → (5월) 116.7 → (6월) 113.4 → (7월) 111.2

옥수수의 경우 전년도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 증가 등에 따른 가격 하락의 기저효과와 아르헨티나의 수출관세 인상[15)], 우크라이나의 터키 무관세 쿼터로 인한 수입 증가[16)] 등으로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8.2% 상승

- 옥수수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12.2 → (5월) 3.1 → (6월) 1.9 → (7월) 8.2
- 옥수수 가격(달러/톤): ('25.4월) 215 → (5월) 204 → (6월) 196 → (7월) 192

대두의 경우 세계 공급량 증가, 미중 무역 갈등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2.7% 하락

- 대두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14.6 → (5월) -15.5 → (6월) -13.4 → (7월) -12.7
- 대두 가격(달러/톤): ('25.4월) 408 → (5월) 414 → (6월) 416 → (7월)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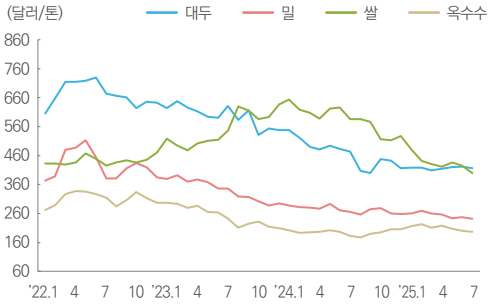
소맥의 경우 러시아의 공급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반구 주요 수출국의 원활한 수확 진행으로 전년동월대비 9.7% 하락

- 소맥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8.3 → (5월) -18.1 → (6월) -9.6 → (7월) -9.7
- 소맥 가격(달러/톤): ('25.4월) 250 → (5월) 237 → (6월) 240 → (7월) 235

쌀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인도의 수출금지 해제, 주요 수출국의 수확기 진입, 국제 수요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33.6% 하락

- 쌀 가격(전년동월대비, %): ('25.4월) -29.9 → (5월) -31.4 → (6월) -33.7 → (7월) -33.6
- 쌀 가격(달러/톤): ('25.4월) 415 → (5월) 431 → (6월) 419 → (7월) 392

| 그림 14 | 농산물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ME

| 표 5 | 농산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4	2025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7월	5월	6월	7월		
옥수수	177	204	196	192	-2.1	8.2
대두	470	414	416	410	-1.3	-12.7
밀	260	237	240	235	-2.1	-9.7
쌀	590	431	419	392	-6.4	-33.6

자료: 세계은행, CME

14)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2025.8.
15)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 협정 이행 및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옥수수 수출세율을 일시적으로 9.5%에서 12%로 인상
16) 터키 정부가 7월 14-31일 동안 옥수수 50만톤 무관세 쿼터를 도입 후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입 수요가 증가

Ⅳ 환경

1 배출권거래[16)]

■ 6월 「지표배출권(KAU24)」의 전월대비 평균가와 종가는 하락

6월 KAU24[18)] 평균가는 톤당 8,743원으로 전월(8,890원)대비 147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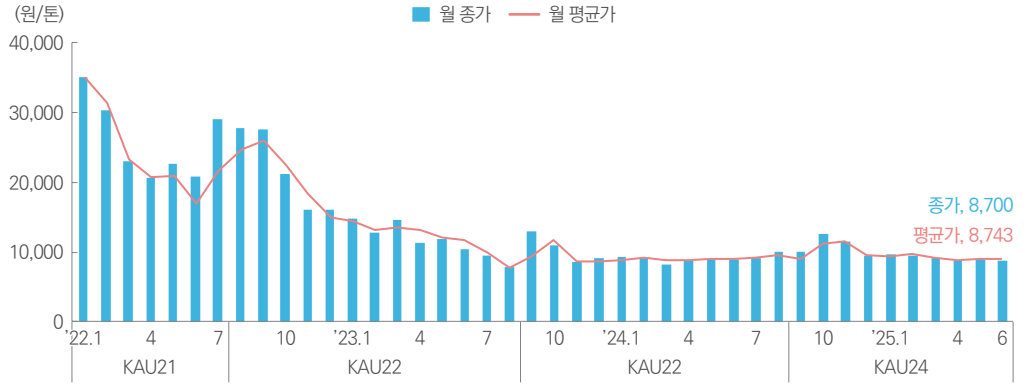
- KAU24 평균가(원/톤): ('25.4월) 8,712 → (5월) 8,890 → (6월) 8,743

6월 KAU24 종가는 톤당 8,700원으로 전월(8,940원)대비 240원 하락

- KAU24 종가(원/톤): ('25.4월) 8,790 → (5월) 8,940 → (6월) 8,700

6월 KAU24의 최저가는 톤당 8,670원('25.6.26), 최고가는 8,900원('25.6.2)을 기록

| 그림 1 | 배출권 장내가격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17)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은 ① 할당 배출권(KAU) ② 상쇄배출권(KCU)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구분되며 『NABO 산업동향&이슈』에서는 주요 배출권인 할당 배출권인 KAU을 살펴봄

18) 배출권거래에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이며, 1KAU는 이산화탄소(CO_2) 1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의미. KAU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연도의 탄소배출권을 나타냄

■ 6월 KAU24의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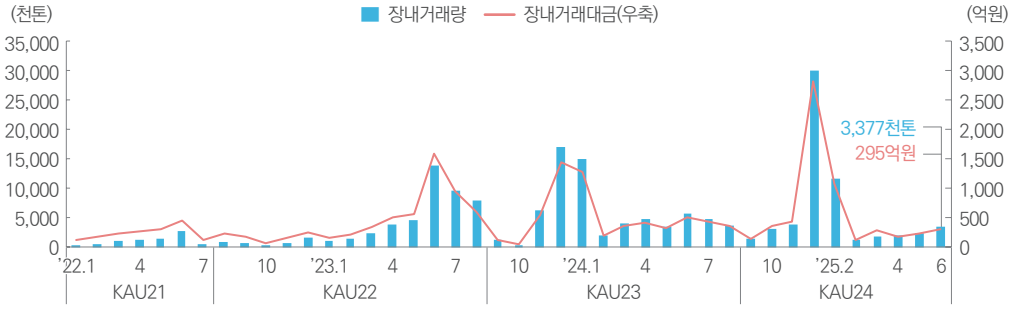
6월 KAU24의 거래량은 5,247천톤으로 전월대비 1,819천톤 증가

- KAU24 거래량(천톤): ('25.4월) 2,228 → (5월) 3,428 → (6월) 5,247
- 6월 KAU24의 장내거래량은 3,377천톤, 유상할당(경매)량은 1,000천톤이며, 장외거래량은 870천톤임
- KAU24 장내거래량(천톤): ('25.4월) 1,928 → (5월) 2,428 → (6월) 3,377

6월 KAU24의 거래대금은 435억원으로 전월대비 131억원 증가

- KAU24 거래대금(억원): ('25.4월) 195 → (5월) 305 → (6월) 435
- 6월 KAU24의 장내거래대금은 295억원, 유상할당(경매)대금은 88억원억원이며, 장외거래는 52억원임
- KAU24 장내거래대금(억원): ('25.4월) 168 → (5월) 216 → (6월) 295

| 그림 2 | 배출권 장내 거래량 및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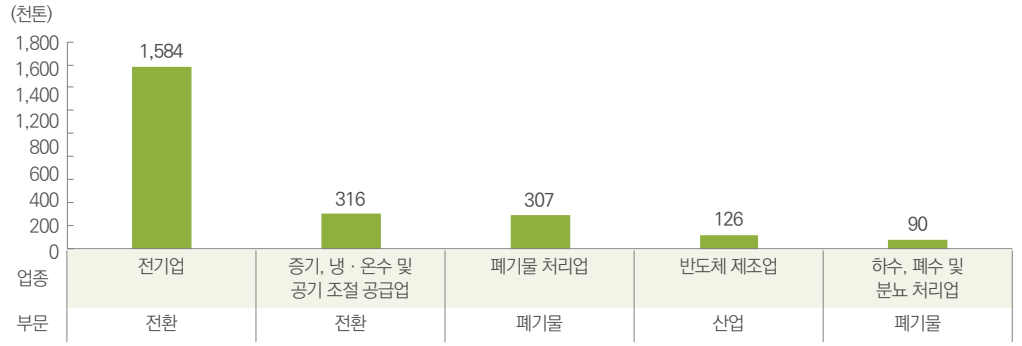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6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① 전기업, ② 증기, 냉 · 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③ 폐기물 처리업 순

- 업종별 매수량(천톤): 전기업(1,584), 증기, 냉 · 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316), 폐기물 처리업(307)

| 그림 3 | 매수 상위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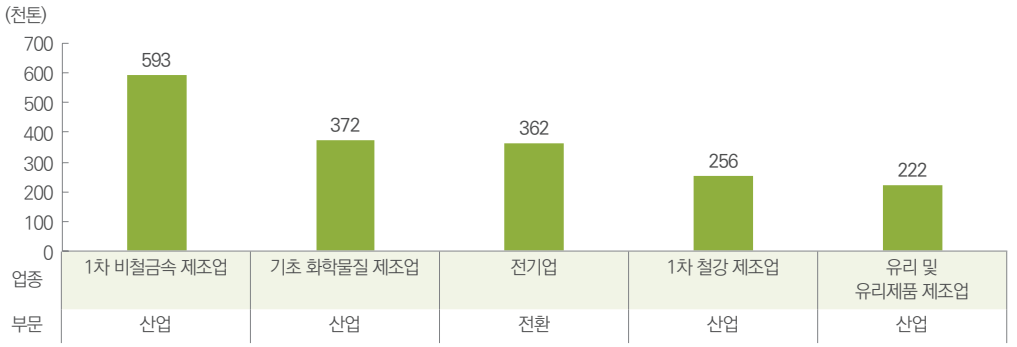


주: KAU24, 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매도 상위 3개 업종은 ① 1차 비철금속 제조업, ②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③ 전기업 순

- 업종별 매도량(천톤): 1차 비철금속 제조업(593),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372), 전기업(362)

| 그림 4 | 매도 상위업종



주: KAU24, 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2 재활용가능자원

■ 7월 조사일(10일)[19] 기준 「국내 폐지」 평균가격은 폐신문지와 폐골판지 모두 상승

폐신문지 가격은 전월대비 0.5원 상승하여 129.1원

• 폐신문지(원/kg): ('25.5월) 125.3 → (6월) 128.6 → (7월) 129.1

폐골판지 가격은 전월대비 1.6원 상승하여 90.3원

• 폐골판지(원/kg): ('25.5월) 81.9 → (6월) 88.7 → (7월) 90.3

■ 7월 조사일(10일)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평균가격은 PET 압축이 상승, PP(플레이크, 펠렛), EPS 잉코트가 하락

PET[20] 압축 가격은 전월대비 2.4원 상승하여 635.9원

• PET 압축(원/kg): ('25.5월) 626.7 → (6월) 633.5 → (7월) 635.9

PP[21] 플레이크 가격은전월대비 6.1원 하락하여 461.2원

• PP 플레이크(원/kg): ('25.5월) 477.3 → (6월) 467.3 → (7월) 4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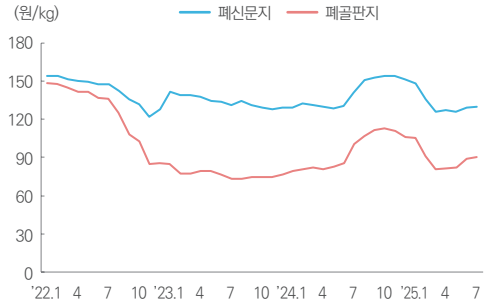
PP 펠렛 가격은 전월대비 0.2원 하락하여 712.4원

• PP 펠렛(원/kg): ('25.5월) 721.2 → (6월) 712.6 → (7월) 712.4

EPS[22] 잉고트 가격은 전월대비 3.1원 하락하여 61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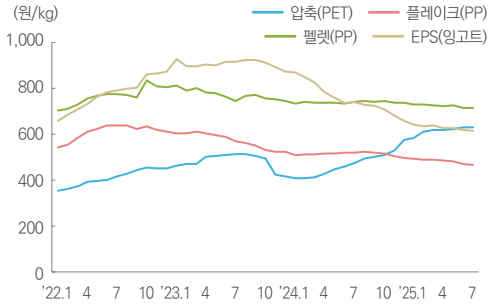
• EPS 잉고트(원/kg): ('25.5월) 623.3 → (6월) 615.1 → (7월) 612.0

| 그림 5 | 전국 폐지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6 | 전국 폐플라스틱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19) 한국환경공단은 매월 10일 5종 26개 품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를 발표
20)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은 무색이며 단단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플라스틱으로 음료수병, 생수병 등으로 활용
21) PP (Polypropylene)는 가벼우며,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주류, 음료 상자 등으로 활용
22) EPS (Expanded Polystyrene)는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한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 제품으로 흔히 스티로폼(상품명)이라 부르며 전자제품, 식품 포장 등으로 활용

■ 7월 조사일(10일) 기준 「폐유리병」 평균가격은 백색, 갈색, 청록색이 모두 하락

유리병(백색) 컬렛[23] 가격은 전월대비 2.3원 하락하여 156.6원

- 유리병(백색) 컬렛(원/kg): ('25.5월) 158.9 → (6월) 158.9 → (7월) 156.6

유리병(갈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1.2원 하락하여 92.0원

- 유리병(갈색) 컬렛(원/kg): ('25.5월) 93.2 → (6월) 93.2 → (7월) 92.0

유리병(청록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1.7원 하락하여 54.6원

- 유리병(청록색) 컬렛(원/kg): ('25.5월) 55.4 → (6월) 56.3 → (7월) 54.6

■ 7월 조사일(10일) 기준 「폐타이어(고무분말)」 평균가격은 하락

폐타이어(고무분말)[24] 가격은 전월대비 13.9원 하락한 284.2원

- 폐타이어(고무분말, 원/kg): ('25.5월) 303.0 → (6월) 298.1 → (7월) 284.2

■ 7월 조사일(10일) 기준 「폐금속」 평균가격은 철스크랩이 하락, 철캔과 알루미늄캔이 상승

철스크랩[25] 가격은 전월대비 8.5원 하락하여 287.2원

- 철스크랩(원/kg): ('25.5월) 285.4 → (6월) 295.7 → (7월) 2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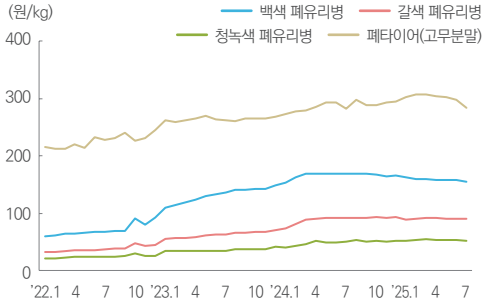
철캔 가격은 전월대비 4.4원 상승하여 283.7원

- 철캔(원/kg): ('25.5월) 270.5 → (6월) 279.3 → (7월) 283.7

알루미늄캔 가격은 전월대비 32.3원 상승하여 2,463.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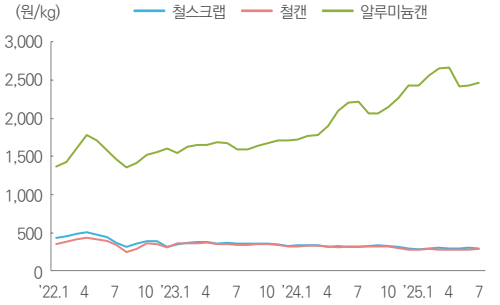
- 알루미늄캔(원/kg): ('25.5월) 2,416.8 → (6월) 2,430.9 → (7월) 2,463.2

| 그림 7 | 전국 폐유리병 및 폐타이어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8 | 전국 폐금속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3) 컬렛(Cullet)은 유리병을 일정 크기로 파쇄한 상태
24)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재활용 소재
25) 사용 후 폐기된 철강 제품이나 철을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고철이라고도 함

V 산업 이슈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원인과 특징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조은영 분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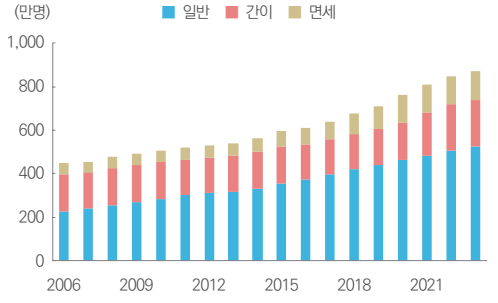
1 검토배경

■ 최근 자영업자[1]의 폐업 증가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

2024년 「국세통계연보」상 자영업자(개인사업자)[2]는 879.7만명이며, 폐업자는 92.5만명으로 2023년(91.1만명, 13.9% 증가) 대비 1.6% 증가하며 2년 연속 폐업자가 90만명을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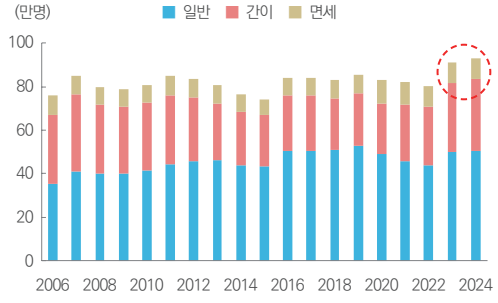
- 개인사업자 폐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는 2023년 31.7만명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 2024년 32.9만명으로 4.1% 증가

| 그림 1 | 자영업자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2 | 자영업자 폐업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1) 자영업자를 지칭하는 용어 통계마다 상이한데 본 현안에서는 자영업자를 「국세통계연보」의 개인사업자로 한정.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비교는 [부록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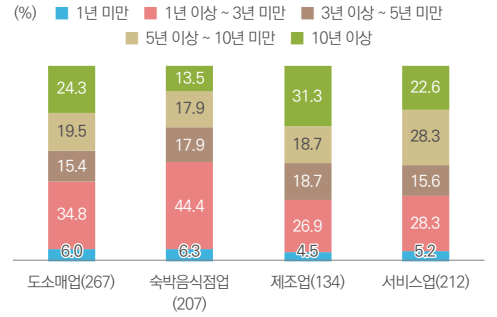
2)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 일반과세사업자는 2024년 7월 전까지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간이과세사업자는 신규사업자 혹은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지칭. 면세사업자는 농·축·수산물 원재료, 꽃, 도서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를 가리킴. 참고로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변경됨

폐업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폐업 시 부채를 남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025년 소상공인 폐업 실태조사」[3)4)]에 따르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이 65.4%에 이르고, 폐업 자영업자의 폐업 전에 창업 및 폐업 횟수는 각각 2.4회, 1.8회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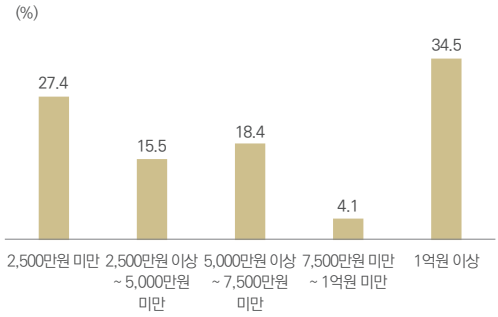
- 폐업 사유로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 86.7%를 차지
- 창업부터 폐업까지 영업 유지 기간은 평균 6.5년이고, 평균 부채가 1억 236만원으로 1억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비중이 34.5%에 이름
- 자영업자 중 폐업자가 최근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업에 따른 부채 증가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그림 3 | 업종별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의 비율



주: ( ) 안은 설문조사 사업체 수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 그림 4 | 폐업 결심 시점 기준 부채액 비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 정부도 최근 추경 편성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채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 중이나 자영업자 간 경쟁심화와 폐업 증가에 대한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5)]

과거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가능성은 업종·입지·자본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대응능력·수요 맞춤 역량·브랜드 차별화 등에도 영향을 받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소멸에 의한 지역별 성장과 소비의 격차 발생

- 이로 인한 고정소비 기반의 축소, 청년층의 지역 이탈, 프랜차이즈·온라인 기반 브랜드 소비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생산 및 운영방식의 자동화, 고객 접점 및 마케팅 방식의 디지털화, 플랫폼 및 공유경제, AI 기술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시장 점유가 가속화됨

■ 이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 추이, 폐업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다른 업종에 비해 창업과 폐업 빈도가 높은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분석

3)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3, 〈https: //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9789&mnSeq=207, 접속: 2025.8.8.〉
4)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한 업체 중 표본 820개를 추출. 응답자의 업종은 도소매업이 32.6%, 숙박음식점업이 25.2%, 제조업이 16.3%, 서비스업이 25.9%였음. 사업체 유형은 독립점포가 62.4%, 프렌차이즈 가맹점업이 21.2%, 대리점이 4.6%, 기타 11.7%에 해당
5) 정은애,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5.8, 27~44쪽.

2 최근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추이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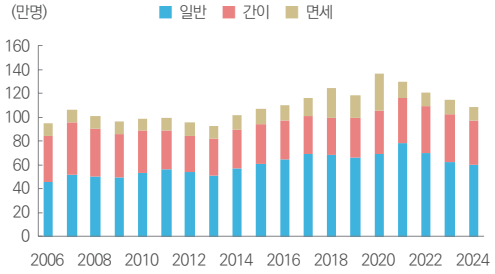
■ 국세통계[6]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의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면서 순창업 수는 감소세

창업자는 2020년 137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7] 2024년에는 109만명으로 감소

- 2020년 창업자는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증가한 데 기인
-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2020년 창업자는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속에 비대면 업종, 기술창업, 30대 미만 청년 창업 증가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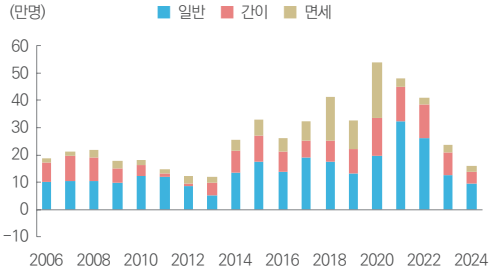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제외한 순창업자 수는 2020년 54만명을 정점으로 2024년 16만명까지 감소

| 그림 5 | 자영업자 창업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6 | 자영업자 순창업 추이



주: 순창업수는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값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업태별로 살펴보면, 최근 비중이 높았던 부동산임대업 창업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매업과 기타서비스업[8]을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이 증가세

2024년 창업은 소매업이 32.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서비스업(27.4만명), 음식업(14.3만명), 부동산임대업(8.4만명),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5.4만명), 도매업(4.2만명), 전기가스수도업(3.2만명)의 순으로 나타남

---

6) 자영업자 창업과 폐업에 대한 통계에는 국세청의 「국세통계」,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 등이 있음. 「기업생멸행정통계」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영리기업 중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에 대해 신생, 생존율, (고)성장, 고용창출효과 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하여 2018년 이후 시도별 사업체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2018~2020년까지 조사기반이었으나 2020~2022년 등록기반으로 변경되었으며 2023년에는 모집단 기준이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기업통계등록부」로 변경됨. 본장에서는 과거 시계열과의 비교를 위해 「국세통계」를 활용

7)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코로나19에도 신규 창업은 역대 최대치 달성," 2021.2.24., 〈https: //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4851&parentSeq=1024851, 접속: 2025.8.4.〉

8) 「국세통계」에서는 업종을 포괄한 업태를 구분하고 있는데,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중개·도급업, 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 기타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서 상기 언급되지 않은 업종을 포함.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서비스업은 16개 산업대분류(E,G~U)로 구분되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도매 및 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S), 가구 내 고용활동·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등을 포함

• 부동산임대업은 2020년 39.0만명에서 2024년 8.4만명으로 2022년 대비 48.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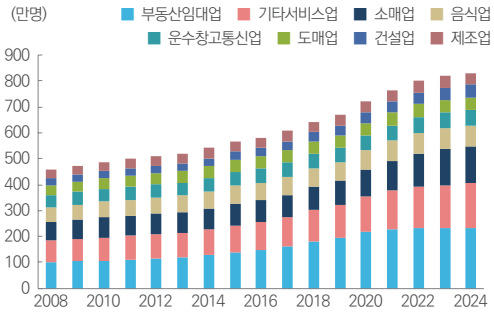
폐업이 많았던 업종은 소매업과 기타서비스업으로 폐업자가 2024년 각각 28.9만명, 19.8만명이었고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40.1%, 20.2% 증가

• 이에 반해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은 2024년 8.5만명으로 2023년 대비 25.0% 감소

순창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기타서비스업으로 2024년 7.6만명이었으며 소매업(3.4만명), 전기가스수도업(2.5만명), 건설업(1.0만명)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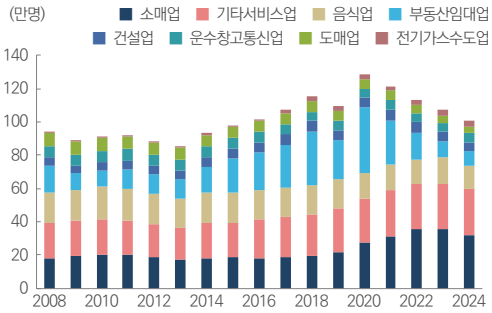
• 창업률과 폐업률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음식업, 도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대리중개도급,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창업률과 폐업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 순창업은 미미한 수준

| 그림 7 | 주요 업태별 자영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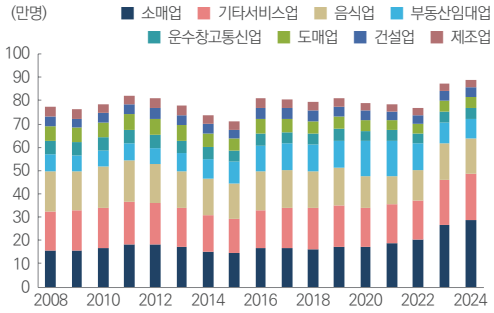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8 | 주요 업태별 창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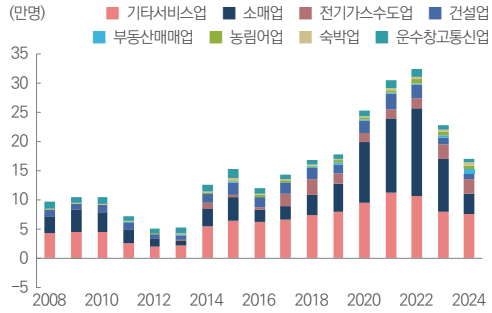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9 | 주요 업태별 폐업자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10 | 주요 업태별 순창업 추이



주: 순창업수는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값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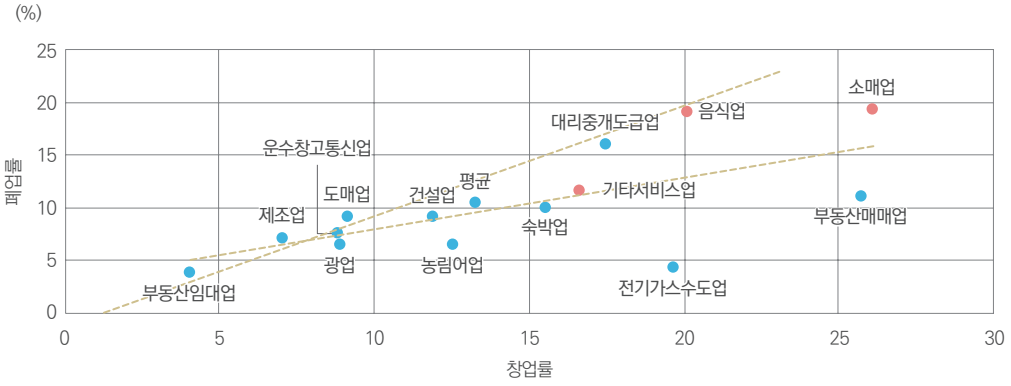
| 표 1 | 자영업자 업태별 창업 및 폐업 현황

(단위: 만명, 전년대비 %)

	창업				폐업				순창업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부동산임대업	9.5	-41.6	8.4	-11.9	9.2	-19.2	8.5	-7.2	0.3	-93.0	-0.1	-138.9
기타서비스업	27.4	0.9	27.4	0.1	19.4	17.9	19.8	1.9	8.0	-25.4	7.6	-4.3
소매업	35.9	0.7	32.3	-9.9	26.8	29.8	28.9	7.9	9.1	-39.4	3.4	-62.5
음식업	15.9	8.2	14.3	-9.5	15.3	15.7	14.8	-2.9	0.6	-59.4	-0.5	-177.4
운수창고통신업	5.4	-6.1	5.4	0.0	4.7	6.5	4.9	4.0	0.7	-47.1	0.5	-25.7
도매업	4.6	-10.8	4.2	-8.7	4.7	13.8	4.5	-4.0	-0.1	-106.0	-0.3	341.2
건설업	5.6	-9.7	5.4	-2.4	4.3	15.8	4.4	1.5	1.2	-49.0	1.0	-16.2
제조업	3.1	-10.1	2.9	-5.6	3.2	15.8	3.1	-2.8	-0.1	-117.0	-0.2	74.5
전기가스수도업	3.1	33.4	3.2	2.4	0.7	5.6	0.7	3.7	2.4	44.6	2.5	2.0
농림어업	1.2	-10.9	1.3	3.0	0.6	2.3	0.6	-5.1	0.6	-21.9	0.6	11.7
대리중개도급업	1.4	6.3	1.4	6.0	1.2	14.2	1.3	2.2	0.1	-40.8	0.2	50.3
숙박업	1.0	3.5	1.2	19.9	0.6	4.4	0.6	-0.2	0.3	1.9	0.5	56.2
부동산매매업	0.7	35.7	1.1	49.7	0.3	5.0	0.4	16.7	0.4	-93.0	75.0	75.0

주: 기타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서비스업에서 상기 분류되지 않은 업종을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11 | 자영업 업태별 창업률과 폐업률의 상관관계(2023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고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2024년 기준 경기(28.2%)이고 서울(19.7%), 인천(5.9%), 부산(5.9%), 경남(5.7%)의 순

•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의 경우 2024년 기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이 전국 평균(19.8%)를 상회하였는데, 전북(29.5%), 경남(29.2%), 제주(2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창업이 많았던 지역은 2024년 기준 경기(33.2만명, 전년대비 -3.6%), 서울(19.1만명, -6.2%), 인천(7.1만명, -4.9%), 부산(5.8만명, -9.6%) 등의 순

• 2024년 전년대비 창업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는데, 2023년(4.1만명, 6.6%)에 이어 2024년에도 4.1만명(1.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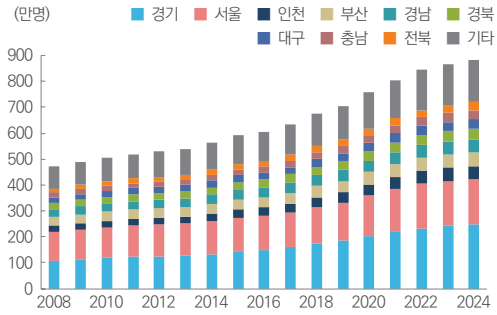
폐업이 많았던 지역은 2024년 기준 경기(27.5만명), 서울(17.3만명), 인천(6.0만명), 부산(5.5만명) 등의 순이었으며 폐업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지역은 경기(5.9%), 세종(4.5%), 대전(3.7%)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와 세종은 2023년과 2024년 폐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

순창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2024년 경기(5.7만명), 서울(1.8만명), 전북(1.3만명) 순이었으며 전년대비 순창업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이 7.3%로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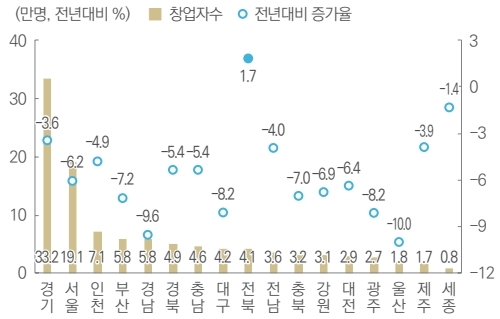
• 순창업이 전년대비 감소한 지역은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 등으로 나타남

| 그림 12 | 지역별 자영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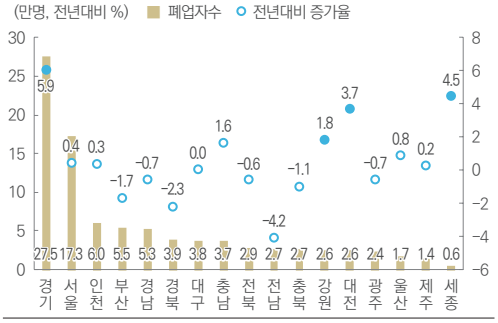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13 | 지역별 창업자 증감(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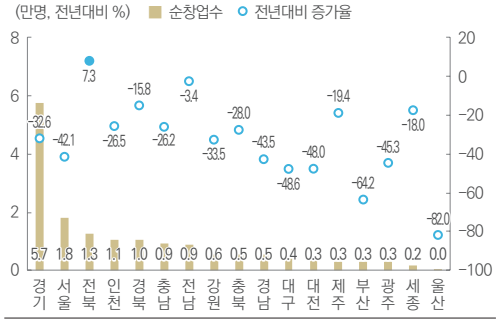
주: 파란색 동그라미는 전년대비 증가를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14 | 지역별 폐업자 증감(2024년)



주: 파란색 동그라미는 전국평균(1.6%) 초과를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15 | 지역별 순창업수 증감(2024년)



주: 파란색 동그라미는 전년대비 증가를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표 2 | 자영업자 지역별 창업 및 폐업 현황

(단위: %, 만명, 전년대비 %)

	취업자 대비 비율	창업				폐업				순창업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수준	증감률
경기	18.1	34.4	-6.3	33.2	-3.6	25.9	14.4	27.5	5.9	8.5	-39.7	5.7	-32.6
서울	15.2	20.3	-6.2	19.1	-6.2	17.2	11.3	17.3	0.4	3.1	-49.6	1.8	-42.1
인천	17.2	7.4	-6.9	7.1	-4.9	6.0	17.0	6.0	0.3	1.4	-49.8	1.1	-26.5
부산	18.4	6.4	-7.1	5.8	-9.6	5.6	10.4	5.5	-1.7	0.8	-55.7	0.3	-64.2
경남	29.2	6.3	-4.6	5.8	-7.2	5.3	12.8	5.3	-0.7	1.0	-48.4	0.5	-43.5
경북	23.3	5.2	-0.8	4.9	-5.4	4.0	15.3	3.9	-2.3	1.2	-32.1	1.0	-15.8
대구	20.7	4.6	-1.9	4.2	-8.2	3.8	16.8	3.8	0.0	0.8	-45.1	0.4	-48.6
충남	23.3	4.9	-9.4	4.6	-5.4	3.6	15.0	3.7	1.6	1.2	-44.3	0.9	-26.2
전북	29.5	4.1	6.6	4.1	1.7	2.9	14.1	2.9	-0.6	1.2	-8.3	1.3	7.3
전남	26.4	3.7	2.2	3.6	-4.0	2.8	16.9	2.7	-4.2	0.9	-26.9	0.9	-3.4
강원	23.1	3.4	-6.7	3.1	-6.9	2.6	11.8	2.6	1.8	0.8	-38.1	0.6	-33.5
충북	22.8	3.4	-3.4	3.2	-7.0	2.7	16.0	2.7	-1.1	0.8	-39.2	0.5	-28.0
대전	17.9	3.1	-0.6	2.9	-6.4	2.5	15.4	2.6	3.7	0.6	-36.8	0.3	-48.0
광주	19.4	2.9	-4.1	2.7	-8.2	2.4	12.8	2.4	-0.7	0.5	-44.9	0.3	-45.3
울산	15.2	2.0	-6.9	1.8	-10.0	1.7	11.0	1.7	0.8	0.3	-55.0	0.0	-82.0
제주	26.5	1.8	-1.4	1.7	-3.9	1.4	25.0	1.4	0.2	0.4	-44.8	0.3	-19.4
세종	15.2	0.8	-6.5	0.8	-1.4	0.6	16.6	0.6	4.5	0.2	-39.9	0.2	-18.0

주: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국세청

■ 연령대별로 30, 40대의 창업과 폐업이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에서 폐업이 창업을 초과

개인사업자 중 50대(247만명, 28.2%)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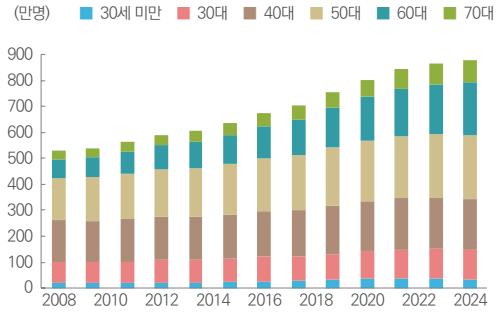
- 이중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60대의 비중이 23.6%(52.4만명)로 가장 높음

2024년 창업이 많았던 연령대는 40대(27.6만명)였고, 50대 이하에서 전년대비 창업이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에서 증가

- 일반사업자의 창업자(59.8만명) 경우 40대의 비중이 27.1%(16.2만명)으로 높았으나 간이과세사업자의 창업자(37.3만명) 경우 30대의 비중이 28.6%(10.7만명)로 가장 높았음
- 30세 미만에서 창업이 14만명으로 전년대비 14.0% 감소한 반면, 60대와 70대에서 창업이 각각 13만명, 3만명으로 전년대비 3.3%, 11.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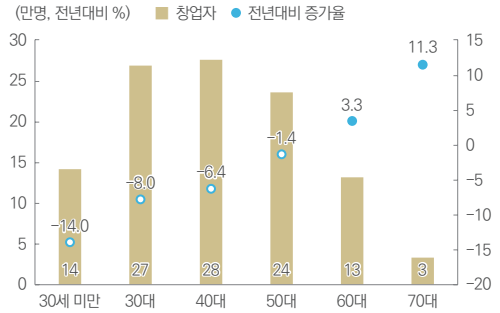
전년대비 폐업이 2023년 13.9%에서 2024년 1.6%로 둔화된 반면, 70대(전년대비 5.8%), 30대(4.6%), 60대(2.6%)의 폐업이 증가

| 그림 16 | 연령대별 자영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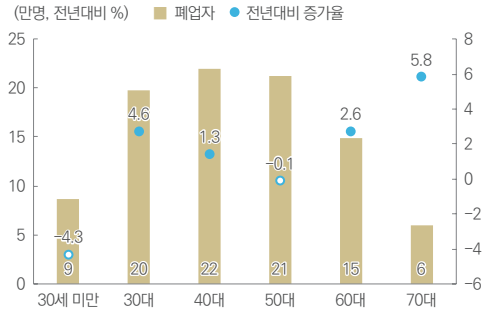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17 | 연령대별 창업자 증감(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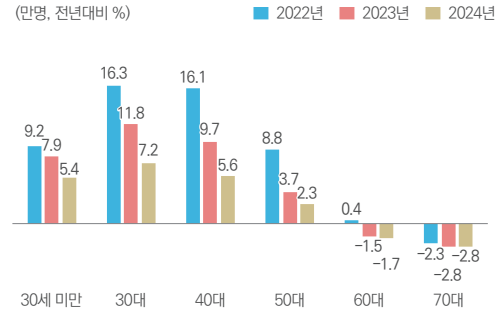
주: 파란색 동그라미는 전년대비 증가를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18 | 연령대별 폐업자 증감(2024년)



주: 파란색 동그라미는 전년대비 증가를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그림 19 | 연령대별 순창업수 증감(2022-2024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3 자영업자 폐업의 요인 분석

가. 분석 방법

■ **선행연구[9]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에 미치는 결정요인은 수요와 비용 구조, 업체의 규모, 지역 내 경쟁 정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

- 지역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써 폐업을 낮춤
- 상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비용 등 고정비용은 폐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9) 남윤미(2017)는 전국사업체조사(2006~2012년)를 활용하여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의 폐업률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COX의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

• 금리인상은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의 위축으로 폐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봄

업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총종사자수와 업력이 증가할수록 일부 업종의 폐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총종사자수의 증가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업력이 길어질수록 폐업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지역 내 경쟁정도가 증가할수록 일부 업종의 폐업위험도가 증가

• 지역 내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의 업체수가 사용되었으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경쟁업체수 증가가 폐업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10] 생존분석기법 중 시간가변 공변량을 포함한 Cox모형[11]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폐업에 미치는 요인을 추정[12]**

종속변수는 자영업자가 창업에서 폐업까지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산출[13]

• 2002~2023년 자료 중 개인사업자이자 단독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측치는 14,964,617개임

설명변수는 수요, 비용, 업체의 규모, 경쟁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14]

• 수요: 시도별 인구수, 시도별 실질GDP증가율
• 비용: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시도별 중대형 집합매장용 임대료
• 업체의 규모: 상용근로자 또는 총종사자수
• 경쟁정도: 시군구 동일업종 업체수(개)를 시도별 인구수(만명)로 나눈 인구당업체수

나. 분석 결과

■ **인구당업체수가 높아져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지역경제성장률이 오르거나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폐업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 「기업생명행정통계」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의 5년차 생존율은 2022년 25.8%로 광업(21.2%), 금융보험업(23.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24.3%)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도소매업의 5년차 생존율은 30.8%임

11) 민인식, 「STATA 생존분석」, 지필미디어, 2023, 69~85쪽.

12) 분석자료, 분석방법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자영업자의 폐업 결정요인 분석방법]을 참조

13) 「전국사업체조사」에는 창업년월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폐업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음. 다만, 전수조사인 관계로 t년도에 사업체고유번호가 있으나 t+1년도에 없는 경우 t년도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여부를 설정. 전국사업체조사가 매해 2~3월에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창업에서 폐업까지 걸린 기간을 산출

14)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설명변수 중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대체 적용. 예를 들면, 남윤미(2017)는 동종업종의 경쟁정도를 동일업종 업체수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구 만명당 업체수를 사용. 또한 남윤미(2017)는 인구수로 읍면동 인구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시도별 인구자료로 대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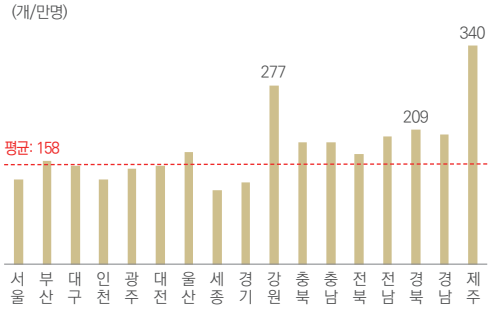
■ 인구당업체수와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hazard ratio)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실증분석 결과, (모형2)에서 인구당업체수가 1단위 증가하면 폐업위험도가 0.6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참고로 음식숙박업체수는 2023년 기준 인구 만명당 158개이며, 제주(340개/만명), 강원(277개/만명), 경북(209개/만명) 등 지방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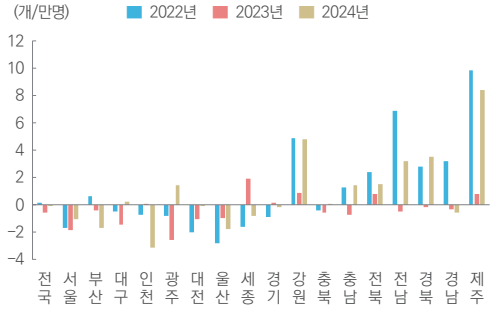
-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인구당업체수는 증가하는데 최근 3년간 특별시와 광역시는 감소한 반면 지방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0 | 지역별 음식숙박업 인구당업체수(2023년)



주: 인구당업체수 = 시도별 업체수/시도별 인구만명
자료: 「전국사업체조사」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림 21 | 지역별 음식숙박업 인구당업체수의 전년대비 증감



주: 인구당업체수 = 시도별 업체수/시도별 인구만명
자료: 「전국사업체조사」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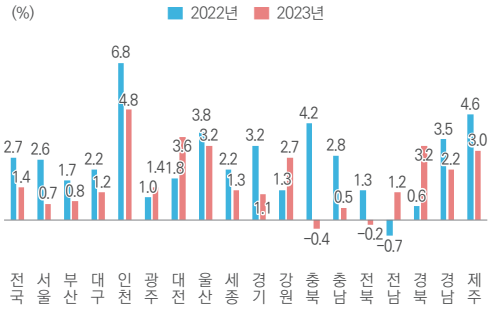
■ 지역경제성장률과 폐업위험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실증분석 결과, (모형2)에서 지역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하면 폐업위험도는 1.13%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지역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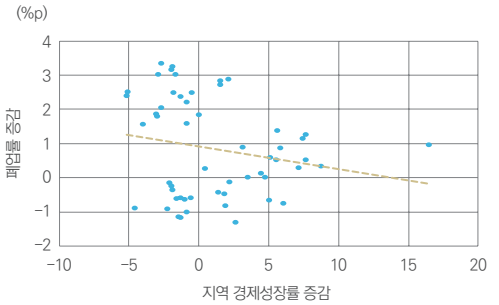
-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역은 인천, 울산, 경남, 제주인 반면, 전남, 전북, 광주, 부산은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2 | 지역별 음식숙박업 인구당업체수의 전년대비 증감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 그림 23 | 지역별 경제성장률과 폐업률의 상관관계



주: 2021~2023년 자료를 대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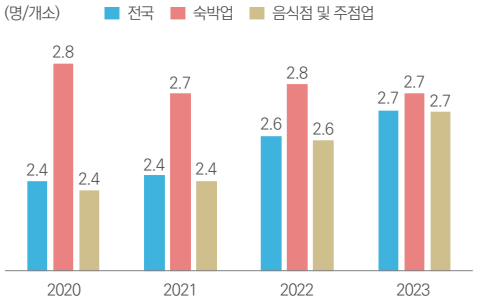
■ 종사자수와 폐업위험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실증분석 결과, (모형2)에서 총종사자수가 1명 증가하면 폐업위험도는 5.02% 감소

종사자수의 증가는 단위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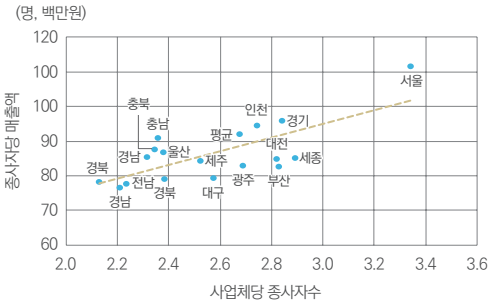
- 참고로, 음식숙박업의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20년 2.4명에서 2.7명으로, 종사자당 매출액은 2020년 72.2백만원에서 2023년 91.9백만원으로 27.4% 증가
-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종사자당 매출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그림 24 | 사업체당종사자수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27 | 사업체당종사자수와 종사자당 매출액의 상관관계(2023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요약 및 시사점

■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자영업자의 폐업이 2022년 대비 13.9%, 15.7% 증가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최근 비중이 높았던 부동산임대업 창업은 감소하였으나 소매업과 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창업이 폐업을 초과하면서 순증세를 보임

경기, 서울, 인천 등 인구당업체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순증하는 가운데 2024년 경기(전년대비 5.9%), 세종(4.5%), 대전(3.7%) 등에서 폐업이 증가

- 이들 지역은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폐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의 증가율이 2023년 전년대비 18.2%로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폐업이 창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간이과세사업자(37.3만명) 중 30대가 28.6%(10.7만명)였으며 폐업자도 25.9% (8.5만명)로 나타남

■ **'음식숙박업'의 폐업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당업체수가 증가할수록 폐업위험도가 늘어난 반면, 지역경제성장률과 종사자수의 증가가 폐업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추정됨**

광역시에 비해 지방의 인구당업체수가 많은데, 이는 자영업자 증가와 인구 감소에 기인

지역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과 2024년 자영업자 폐업의 증가가 코로나19 시기 재정지원 등으로 지연된 폐업의 실현인지 아니면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는 지역 경제성장의 둔화 및 수요 저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선호와 일부 지방의 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의 심화,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경영성과의 양극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지역 경제성장 제고를 통한 수요 증진과 더불어 창업과 폐업의 높은 상관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적정 수요를 추정 및 반영하고 인구당업체수 완화, 사업체의 규모 성장 등에 보다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해 주민의 소득 수준과 구매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지역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리모델링(Pivoting)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창업 후 '성장단계(Scale-up)' 진입한 사업체의 경영· 마케팅·자금 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

[부록 1]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개념 비교[15)]

■ **자영업자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국세청 「국세통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766만개로, 간판없는 무등록 소상공인과 복수의 사업자를 포함

국세청 「국세통계」의 개인사업자는 2024년 880만명으로, 사업자등록에 기반하기 때문에 농림어업종사자는 포함하지 않는 반면, 중복가능한 임대사업자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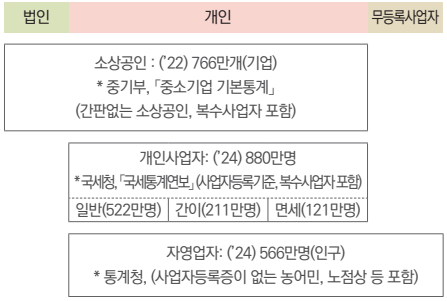
-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522만명), 간이과세사업자(211만명), 면세사업자(121만명)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 일반과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미달에 해당됨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납부세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자는 2024년 기준 566만명(취업자 대비 19.8%)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과 노점상 등을 포함

-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02년 27.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에 기인
  - 참고로, OECD 국가 중 한국의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23.5%로 7번째로 높으며, 선진국 중 20%를 초과하는 국가는 이탈리아(21.5%)와 한국 뿐임
- 자영업자 수는 2015년 이후 560만명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551만명까지 감소하였으며 2024년 566만명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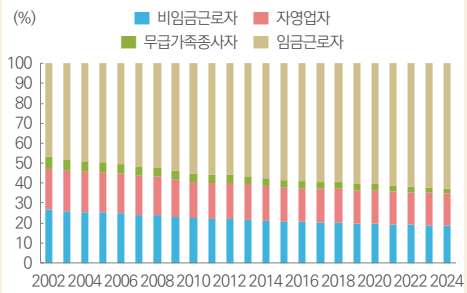
15) 정은애,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25.8.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개념에 따른 현황 비교



자료: 금융위원회(2024)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자료: 통계청

[부록 2] 자영업자의 폐업 요인 분석방법

■ (분석모형) 시간가변 공변량(time-varying covariates)을 포함한 Cox 모형 활용[16)]

생존분석은 생존 기간에 걸친 위험확률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고려한 분석 방법으로, 폐업 이후 개체가 데이터에서 관측되지 않는 우절단(right censored) 자료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독립변수를 함께 다룸

Cox 비례모형은 개별위험함수가 기저위험함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모수적 모형으로, 부분 최우추정법을 활용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위험률(hazard ratio)을 추정

- 즉, 공변량 x가 위험률(hazard ratio)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과 무관하게 비례적으로 일정하다는 비례적 해저드 가정(Proportional Hazard Assumption: PH Assumption)을 전제로 함

$$h(t|x_i) = h(t|0) \times exp(\beta x_i)$$

이에 반해 확장된 Cox 모형은 시간가변변수 x_p를 포함하며 $\delta_p > 0$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x_p변수가 사건발생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변하게 됨

$$h(t|x_i) = h(t|0) \times exp(\beta_1 x_1 + \beta_2 x_2 + \cdots + \delta_p x_p f(t))$$

16) 민인식, 「STATA 생존분석」, 지필미디어, 2023, 69~85쪽.

$h(t|x_i)$는 자영업체 i의 t시점에서의 폐업확률을, 독립변수에는 시도별 인구수, 시도별 실질GDP 증가율,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시도별 중대형집합매장용임대료, 상용근로자수, 총종사자수, 시군구 동일업종 업체수(개)를 시도별 인구수(만명)로 나눈 인구당업체수를 포함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와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이용

음식숙박업(대분류 I)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기간은 2002년 2023년까지이며, 임대료의 경우 2014년 이후 자료를 사용

- 중대형매장용임대료(7,469,328개)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관측치는 14,964,617개임
- 지역 실질 경제성장률은 평균 3.66%이며 중대형매장용임대료의 평균은 m^2당 27.9천원임
- 상용근로자는 평균 0.53명이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근로자, 기타근로자를 포함한 총종사자수의 평균은 2.6명임
- 인구당업체수는 만명당 평균 2.64개이며, 제주(20.09개/만명), 세종(14.39개/만명) 등이 많은 반면, 경기(0.45개/만명), 서울(0.65명/만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표2)
- 생존기간은 평균 171.3개월임. 참고로, 음식숙박업의 0~1년차 폐업률은 2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표3)

기초통계량

	평균	편차	최소	최대	출처
인구(만명)	556	441	12.2	1,363	통계청
지역실질경제성장률(%)	3.66	2.28	0.1	25.7	통계청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5.2	1.5	2.86	7.81	한국은행
중대형매장용임대료(천원/m2)	27.9	11.4	9.94	52.32	한국부동산정보원
상용근로자(명)	0.53	2	0	1,058	통계청
총종사자(명)	2.6	2.89	1	1,476	통계청
인구당업체수(개/만명)	2.64	4.77	0.0007	73.35	-
생존기간(개월)	171.3	146.5	1	2,426	-

주: 중대형매장용임대료의 관측치는 7,469,328개이고 이외 변수는 14,964,617개임

지역별 음식숙박업 인구당업체수 현황

(단위: 개, %)

	사업체수	평균	편차	최소	최대
서울	138,619	0.648	0.556	0.001	2.546
부산	55,922	1.151	0.933	0.003	3.987
대구	37,976	2.341	1.874	0.004	6.543
인천	41,726	1.806	1.518	0.003	5.688
광주	22,065	3.709	2.94	0.007	9.872
대전	23,164	4.008	3.201	0.007	11.032
울산	19,964	4.228	3.584	0.009	12.604
세종	4,829	14.393	11.334	0.026	31.33
경기	183,285	0.449	0.46	0.001	2.285
강원	43,926	2.743	2.848	0.007	11.356
충북	31,440	2.203	2.137	0.006	8.183
충남	42,097	1.994	1.948	0.005	7.014
전북	31,373	2.303	2.233	0.006	7.198
전남	37,127	2.000	2.184	0.006	8.569
경북	54,980	1.816	1.922	0.004	7.881
경남	67,454	1.477	1.456	0.003	6.521
제주	24,251	20.093	15.574	0.015	45.968

주: 인구당업체수 = 세세분류 기준 시군구 업체수 / 시도별 인구 만명

음식숙박업 폐업 현황

(단위: 개, %)

	총사업체 (A)	폐업사업체 (B)	폐업률 (B/A)	창업연차별 폐업 비중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018년	733,175	152,087	20.74	22.15	23.17	14.57	9.59	7.03
2019년	750,019	107,408	14.32	23.98	18.69	15.53	9.47	6.86
2020년	822,039	150,969	18.37	23.63	29.52	12.15	8.2	6.03
2021년	863,009	154,972	17.96	23.98	18.69	15.53	9.47	6.86
2022년	813,565	163,026	20.04	21.7	19.83	13.87	11.12	7.53

주: 2023년은 2024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폐업 산출이 안됨

■ **(분석결과) 인구당업체수의 증가는 폐업위험도(Hazard ratio)를 상승시키는 반면, 지역경제성장률, 중소기업대출이자율, 상용근로자수와 총종사자수의 증가는 폐업위험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추정결과, 설명변수가 1단위 상승하는 만큼 폐업위험도가 증감하게 됨

- 예를 들면, (모형1)에서 인구당업체수가 1단위 증가하면 폐업위험도가 0.69% 증가하는 반면, 사업체당 상용근로자가 한 명 증가할 때 폐업위험도는 7.42% 감소
- 다만, 중소기업의 대출이자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나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임

분석결과

(단위: 개, %)

	모형1	모형2	모형3
	Haz. ratio (Std. Err.)	Haz. ratio (Std. Err.)	Haz. ratio (Std. Err.)
인구수	1.0000*** (3.16e-06)	1.0000*** (3.17e-06)	1.0000*** (3.16e-06)
지역경제성장률	0.9626*** (0.0008)	0.9887*** (0.0003)	0.9887*** (0.0005)
중소기업대출이자율	0.4719*** (0.0013)	0.7145*** (0.0004)	0.7145*** (0.0004)
임대료			0.9258 (0.0011)
상용근로자수	0.9258*** (0.0020)		
총종사자수		0.9498*** (0.0005)	
인구당업체수	1.0069*** (0.0004)	1.0064*** (0.0003)	1.0001*** (0.0001)
No. of subjects	14,963,001	14,963,001	7,469,338
No. objects	14,963,001	14,963,001	7,469,338
No. failures	2,742,429	2,742,429	1,265,144
Wald chi2(5)	391,105	391,278	118,062
Prob 〉chi2	0	0	0

주: 1. ***, **, *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모형1과 모형2는 2002~2023년 자료를, 모형3은 2014~2023년 자료를 사용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25년 8월호 통권 제77호

발행일	2025년 8월 2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7-001585-06
ISSN	3058-985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